

## LA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교계도 적극 동참

한인들 정치력 신장 위해 KCCD, 남가주교협 등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소송을 앞두고 한인사회와 교계가 힘을 합치고 있다. 2012년 LA 시의회가 확정된 선거구 재조정안에 따르면, 한인타운은 10지구와 13지구로 나누어져 한인들의 정치력 결집과 신장에 거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게 됐다.

LA 시의회의 발표 후 한인들은 즉각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리고 한미연합회(KAC), 한미변호사협회(KABA), 한미민주당협회(KADC), 한인연장자센터(KSC),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 한인남가주총대학생회(SCKCSA), LA한인회, LA노인회 등 한인 단체와 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KCCD),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등 교계 관련 단체들도 이 문제에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송에 앞서 일단 오는 9월 9일 공청회에서 약식재판이 열리게 되며 여기서 승소할 경우, 내년 5월 선거에서 주민들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의 경우는 10월 7일부터 재판이 시작된다.

소송의 골자는 LA 시의회가 특정

인종 유권자를 근거로 선거구의 경계를 설정해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사실과 선거구 재조에 대한 주민투표를 금지한 LA시 현안이 주 헌법을 위배한다는 것 등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한인들의 명확한 의지라고 할 수 있다. 대형 로펌인 에이킨컴프가 무료 변론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각종 법률 자문 및 서류 비용으로 20만 달러가 필요하다. 현재 약 4만 달러가 확보된 상황으로 20만 달러에는 크게 못 미치는 형편이다.

한편, 21일 열린 기자회견에는 박효우 남가주교협 회장을 비롯해, 3년 가까이 선거구 문제와 관련해 교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변영익 전 남가주교협 회장이 참석해 선거구 조정에 관한 교계의 열망을 나타냈다.

교계는 지난 2012년 초 한인타운 내 월셔 블러버드와 웨스턴 애비뉴 사거리에서 선거구 단일화를 위한 평화 기도회를 개최하고 한인교회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는 등 노력을 계속해 왔다.

김영신 기자



“예수님만 자랑해요” 남가주 지역의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제9회 여성성경학교가 “예수님만 자랑해요”라는 주제로 열린다. 은혜한인교회 장애인사역국 Jesus' Light가 주최하는 이 학교는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린다. > 문의: 이송준 전도사 714-497-6059 yesdanny@gmail.com

## 미국장로교(PCUSA), 결혼 재정의안 최종 통과될까

동성결혼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결혼을 재정의하려는 미국장로교(PCUSA) 총회의 시도가 지역 노회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PCUSA 총회는 목회자의 동성결혼 축복과 집례를 허용함과 동시에 교단 규제집에서 '결혼'의 정의를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이 아닌 '두 사람 간'으로 바꾼다는 개정안까지 통과시켰다.

목회자 동성결혼 축복 허용에서 더 나아가, 교단법상 명백히 동성결혼까지도 결혼으로 인정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이 개정안에 교단 내 보수주의자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이로 인해 교단을 떠날 수도 있다는 점을 피력해 왔다.

이 가운데 이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기 위해서는 노회 과반수 이상의 승인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PCUSA 총회 대변인인 토야 리처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상할 수가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총회에서 표결될 당시에 이 개정안

은 총대 절대다수의 찬성표를 받아서 통과됐다. 그러나 총 172개 노회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수의 노회가 이러한 방침에 동의의 표를 던져 줄지는 확실하지 않다. 만약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받아서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2015년 6월 21일부터 발효하게 된다.

플로리다 지역 노회의 장로 테드 랜드 박사는 자신의 노회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년에 결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는 1월 열릴 모임에서 플로리다 지역 노회는 이 문제를 표결에 부치게 될 것이다. 100여 명의 장로들이 참석해서 각자의 양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투표할 것이다”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전혀 예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PCUSA는 지난 2012년 총회에서는 동성애자 성직 안수를 허용했으며 이에 반발한 교회들의 탈퇴로 인해 올해까지 3년 연속 교세 감소를 겪고 있다. 플로리다 지역 노회에서도 45개 교회가 PCUSA를 탈퇴했다고 랜드 박사는 밝혔다.

PCUSA의 결혼 재정의 개정안은 보수주의자들로부터 성경에 대한 반박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교단 내 교인들뿐 아니라 미국 교계 보수주의자들 역시 이러한 결정에 충격을 표하며 동성결혼 허용으로 인해 교단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PCUSA 총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미국의 유명 보수 기독교 작가 마이클 브라운(Michael Brown)은 개정안을 두고 “이는 전적으로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전적으로 비논리적이고, 여러 수많은 가능성들에 대한 주장으로 가득 찬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행위와 같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동성결혼을 인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한 개정안이 ‘이성 또는 모호한 표현으로 결혼을 재정의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도, “이는 보수주의자들을 안심시켜서 노회의 찬성표를 얻어 내기 위한 일종의 ‘타협’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손현정 기자

## SB1306 “캘리포니아에는 남편과 아내 없다”

주지사 서명 받아 2015년 1월 발효

최근 캘리포니아의 결혼법에서 ‘남편’과 ‘아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이를 명명하는 SB1306을 발의한 마크 리노 의원은 “시대에 뒤떨어지며 편향적인 언어를 법 조문에서 사라지게 해야 한다”면서 이 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은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2015년 1월 발효된다.

캘리포니아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직후부터 이 법안은 급물살을 타 지난 5월 상원을 25대 10, 6월 하원을 54대 16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

과했다.

이 법은 결혼에 대해 “두 사람의 시민적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개인적 관계”로 규정한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공립학교 동성애 의무 교육법(SB48), 남녀화장실 공동사용법(AB1266), 청소년 동성애 치료 금지법(SB1172) 등 친동성애적인 법안이 잇따라 통과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모를 3명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도 추진 중에 있다.

김영신 기자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 3590 Religious Exemption)  
**월\$40~\$175**  
 • 수입과 신분에 상관 없음  
 • 모든 의사, 병원 사용 가능  
 •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가입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유류차 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100% 천연성분

프로지(PRO-Z)를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복용하시면 췌장에서 정상적인 인슐린 분비를 가능케 해 당뇨병에서 해방됩니다. 프로지(PRO-Z)는 근육세포 내에 당 대사를 거부하는 근본원인을 개선하여 혈당을 스스로 조절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 동안 임상시험을 실시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 감소, 70% 이상 환자에서 혈당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병원 2곳에서는 당뇨치료 보조제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 ✓ 한국 30만명 판매
- ✓ 미국 출시 기념 SALE

Special Price  
 1병 \$76 3병 \$200 6병 \$372

###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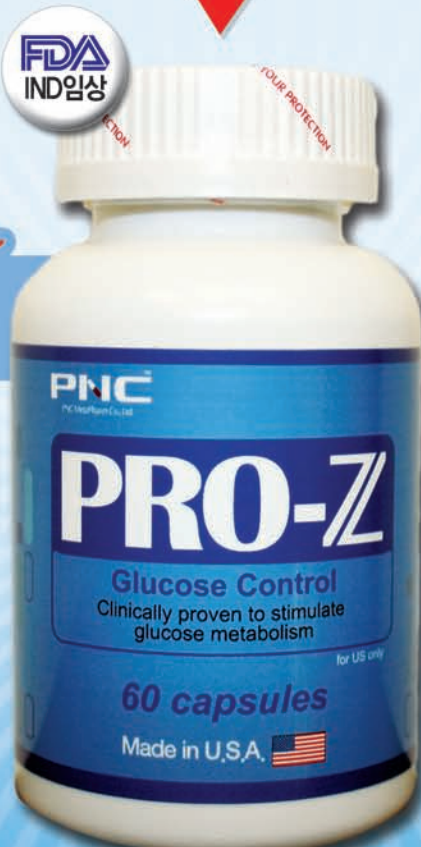
40여 년간 당뇨 연구를 해온 대한민국 대표과학자로 한국인 최초로 미국연방 정부 지원을 받아 당뇨 신약개발을 위해 FDA 3차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 재향군인병원 수석연구원 세계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 베타 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하는데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 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유지에 그쳤으나 PRO-Z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며,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 내 몸에서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게 하는 당뇨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솔루션입니다.



**PRO-Z USA** 미국 공식 판매처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문화 차이로 아이들 빼앗겨선 안돼”

## 남가주장로회 LA카운티 가족아동서비스국과 조인식 체결



남가주장로회는 LA 한인타운 월셔갤러리 2층 사무실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한인들의 권익 증진을 힘쓰기로 약속했다. 기자회견에는 남가주목사회 회장 정준윤 목사와 미주대신대 전 총장 강부웅 목사 등 교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남가주장로회(대표 김영 장로)와 비영리 단체 Uplift Simone Curis가 공동으로 LA카운티 가족아동서비스국(DCFS-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과 조인식을 갖고 아동학

대 △가정폭력 △정부에 자녀를 빼앗기는 일들에 대한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기로 했다.

지난 16일 남가주장로회는 LA한인타운 사무실에서 이들 단체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한인들의 권익 증진에

힘쓰기로 약속했다.

남가주장로회 김영 회장은 “한인 동포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는 가정폭력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자녀를 빼앗기는 문제가 제도권 안에서 보호되어야 하며, LA카운티 DCFS국 프로그램에 협력해 어려움에 처한 한인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장로회는 가정폭력을 당한 가족과 어린이들이 있는 보호소에 필요한 △웃가지 △중고물품 △식품 등을 요청한다고 남가주 한인사회에 밝혔다.

DCFS의 에릭 마츠 지역행정관은 “매년 LA카운티에 한인 아동을 포함해 약 3만5000명이 가정폭력으로 당국에 맡겨지며, 그 가운데 1만9000여명은 위탁부모에게 보내지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 문의 : 213-284-1212

맹 토마스 기자

## 미션스쿨 동문들, 찬양으로 연합과 친목을!



합창제를 준비하며 7개 미션스쿨의 관계자들, 장소를 제공하게 될 가스펠교회 관계자들이 7월 20일 회의를 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미션스쿨 동문들이 연합해 합창제로 하나뎌게 영광을 돌린다. 2002년 제1회 합창제가 열린 이래,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미션스쿨 동문 합창제”가 남가주가스펠교회에서 8월 24일 오후 7시에 열린다.

이 합창제에 참여하는 학교는 배재고, 이화여고, 경신고, 정신여고, 숭실고, 송의여고, 대광고 등 7개교다. 이 행사는 매년 각 학교가 돌아가며 주최하고 있고 각 학교마다 성가 1곡과 자유곡 2곡을 부르고 모든 참석자들이 연합 찬양을 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행사를 주최하는 배재고의 단장 이현규 씨는 “찬송가를 많이 부르

는 기독교의 특성상 미션스쿨도 합창과 음악이 발달했다”면서 “음악을 사랑하는 미션스쿨끼리 우의도 다지고 문화 생활을 즐기자는 의미에서 이 합창제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정신여고의 백남금 씨는 “학교 합창단 출신들이 이민을 온 후에도 여러 교회 성가대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고 각 학교 동창회에서도 합창단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합창제의 수익금은 남가주 가스펠교회의 탄자니아 선교 기금으로 기부된다.

▷ 문의 : 562-972-3865

김내래 기자

## 복음주의 교회, 1년에 한번이라도 복음 전하는 교인 2%에 불과

### 토기장이교회 ‘GO 전도사역원’ 조영 장로 초청 전도세미나 열어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 내에서 1년에 한 번이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교인은 2%에 불과합니다.”

“미국이란 나라에 코리안 아메리칸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길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영혼마다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GO 전도사역원’ 대표인 조영 장로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토기장이교회(임경남 목사)에서 열린 전도세미나 특강 강사로 나섰다.

조 장로는 “신학교 다닐 때 목회자들은 전도하는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 하지만 막상 목회를 시작하면 전도를 두려워 하며 힘들어 하는 목회자가 많다. 그래서 이 집회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도하는 교회가 너무 없다. 오히려 이단들은 전도한다. 막상 전도하고 있는 교회도 보면 그나마 전도하는 이들은 평신도가 99%다”라고 말했다.

또 “전도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성도들은 그 모습을 닮아간다. 전도 집회를 통해서 변화된 한 교회는 목회자부터가 전도하는 체질을 바뀌어,



전도세미나를 통해 성도들은 전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우게 된다. 사진은 실습하는 모습.

평신도들도 다 전도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조 장로는 “교회마다 전도특공대가 조직되어야 한다. 미국은 세계의 모든 인종이 다 들어와 있는 황금어장이다. 1년에 1000명을 만나겠다고 목표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나님의 기쁨을 한 번 맛보면 그 기쁨은 인간적으로는 형언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라”고 강조했다.

‘GO 전도집회 세미나’는 2일간의 전도 훈련 세미나를 통해서 인종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미주 내 모든 다인종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수많은 교회에서 전도자를 배출하고 있다.

▷ 문의 : 661-942-8827,

syc@GO 91.com,

www.Go Now Save.com

이인규 기자

## 플러튼아가페교회 “알곡 신자 되어 참여배자로”

플러튼아가페교회(제이슨 전 담임 목사)가 17일부터 20일까지 세계아가페선교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요한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성령집회를 개최하고 큰 힘을 얻었다.

김요한 목사는 20일 오전 11시에 제이슨 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순종하여 받을 수 있는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날 김요한 목사는 자신이 일평생 주님과 동행했던 기적과도 같은 삶을 간증하며 풀어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 가운데 빠지면서 생기는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서 떠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가정이나 단체, 나아가 국가도 마찬가지”라며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지만 참신자가 없으면 거짓신자도 있다는 것이 문제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알곡 신자가 되어 주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요한 목사는 “하나님을 경배



성령집회에서 세계아가페선교교회 김요한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하는 일,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 삶 속에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일은 매우 중요한 본질이다”고 했다.

플러튼아가페교회는 오는 10월에 창립 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맹 토마스 기자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버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W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천천히 다 돌려받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Pueno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Health Net** **DK HEALTH INSURANCE, INC.**

**헬스넷 보험회사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DK건강보험이 헬스넷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을 소개합니다.**  
(구 하나건강보험)

**KAKAO TALK**

**213-500-4563 ID:DKHEALTH**

1. PPO 스타일의 HMO 플랜이기 때문에 건강 보험료가 파격적으로 저렴합니다.
2. PPO 스타일의 HMO이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이 매우 좋아합니다. HMO는 매달 소정의 담당환자의 수에 따라 의료서비스 제공 비용을 받지만 PPO는 환자의 방문에 따라 의료 서비스 제공 비용을 받습니다. 헬스넷의 오바마 건강보험은 HMO이지만 환자 방문에 따라 의료비가 지불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매우 좋아합니다.
3. DK건강보험의 진정한 건강보험 프로들의 애프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카카오톡 서비스를(카카오톡 계정 DKHEALTH 혹은 213-500-4563을 저장하세요)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카카오톡을 통해 건강보험의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서비스 해드립니다. 신분이나 세금을 내신 기록에 따른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지만 최대한 저렴하며 보험가입자의 혜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세부터 65세까지의 모든 건강 보험을 도와드립니다. 65세 이상의 건강보험도 도와드립니다.**

문의 전화 **1-855-386-3088, 1-213-500-4563** **DK HEALTH INSURANCE, INC.** (구, 하나건강보험) **DKHIS.Inc** LIC #:0146629



# “영성과 지성” 한동대 美 한인들에게 문 활짝

## 국제화 시대에 영성과 지성으로 무장한 기독교 학교

1995년 개교한 이래, 명문 기독교 사립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한동대 학교가 미주의 한인 차세대들에게 입학의 문을 활짝 연다. 최근 LA 방문을 시작으로 미주를 순회하며 학교 설명회를 열고 있는 장순홍 총장은 “영성과 지성, 인성을 모두 갖춘 인재 양성의 요람”이라고 학교를 소개하며 “전세계를 변화시킬 한동대 학교로 초대한다”고 말했다.

한동대학교는 역사는 20여 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한 학교다. 전교생의 대다수가 기숙사 생활을 하며 끈끈한 신앙적 교제를 나누는 것은 기본이고 학생과 교수가 함께 하는 채플, 새벽기도, 각종 제자양육 및 선교 훈련 프로그램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타 기독교 대학들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한동만의 장점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국제화라고 할 수 있다. 장 총장 역시 한동대의 가장 큰 특징으로 영성과 함께 국제화를 꼽았다. 이 학교의 현재 외국인 학생은 전교생의 약 15%이며 외국인 교수도 약 40여 명에 달한다. 2013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영어 강의 비율 1위, 외국인 교수 비율 8위에 오르기

도 했다. 장 총장은 “한국어가 약간 불편한 2세대들이 오더라도 학교에 쉽게 적응할 수 있으며, 오히려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한국어까지 배울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한동을 거쳐간 외국인 학생은 60개국에서 온 1013명이다. 2014년 3월 현재 학부에 90여 명, 대학원에 60여 명이 재학 중인 상황이지만, 의외로 재외 한인 동포 학생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이번에 장 총장이 직접 미주를 방문한 이유도 한동의 영성과 지성이 조화된 교육을 미주 한인들과 나누고 싶어서다. “미국에도 전통과 명성을 자랑하는 기독교 사립대학이 많은데 굳이 한인 자녀들이 한동을 택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란 질문에 장 총장은 “한동의 특징은 깊은 영성과 높은 학문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 자부심을 표한 후 “한인들이 미국을 떠나 한국에서 교육받으며 미국을 오히려 더 잘 알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가지 매력은 바로 저렴한 학비다. 물론 학비 자체가 저렴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대학에 비교할 때 상당히 저렴하다. 예를 들면, 2002년



장순홍 총장이 LA를 방문해 7월 18일 학교를 홍보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설립된 한동대학교의 국제법률대학원은 미국의 로스쿨보다 훨씬 저렴한 학비로 공부할 수 있지만 설립 이래 255명의 미국 변호사를 배출해 내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또 학비와 관련해서는 한동이 수여하는 다양한 장학 제도의 덕이 크다. 성적 장학금부터 시작해서, 선교사 자녀 장학금, 탈북 주민 장학금, 가계 곤란자 장학금, 외국인 학생 장학금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김준형 기자

# 해외에서 거듭난 탈북자

## 신앙 정착률 훨씬 높아

통일소망선교회(대표 이빌립 선교사)가 주관한 2014 북한선교 복음 컨퍼런스 ‘십자가의 복음으로 북한을 회복하라!’는 주제로 17~19일 성남시 분당구 할렐루야교회(담임 김승욱 목사)에서 열렸다.

대표 이빌립 선교사는 컨퍼런스 첫 날인 17일 인터뷰에서 “최근 발표에 따르면, 제3국에 있는 탈북자 수를 1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제3국에서 탈북자 선교와 양육을 하는 한인 선교사들은 20여 명에 불과하다. 러시아에도 탈북자들이 2만명 정도가 있는데, 그들을 대상으로 한 한인 선교사는 5명도 채 안 된다. 고통스러운 현실”이라며 “우리는 탈북자들을 복음으로 양육함으로써 북한선교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이 사역에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최소한 몇 사람이라도 이 컨퍼런스를 통해 북한사역에 헌신하기를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 탈북자 선교를 위한 한인 선교사가 거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다. 해외 탈북자 선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필리핀 선교를 나가 몇 가정이라도 전도하면 작은 센터나 교회라도 세울 수 있지만, 탈북자 선교는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또 위험하다”고 어려움을 드러냈다.

해외 탈북자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들어오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육적인 욕구가 충족되니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제3국에 있을 때는 마음이 가난하다. 국적이 없고 자유가 없는 곳에서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들으니까 말씀이 스핀지처럼 들어간다. 탈북자들은 선교사들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 남한에서 3년 양육해도 안 되는데, 제3국에서는 몇 개월 만에 심령이 거듭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선교회는 선교사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북한선교 중에 위험한 일을 당한 적이 없다. 상당한 수의 탈북자들을 돈 한 푼 받지 않고 구출했다. 저도 상당한 탈북자들을 양육했다. 거의 100%가 지속적으로 교회에 나온다. 교회에 잘 적응하고, 헌신자로 양육받고, 신학교도 많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양육받지 못하고 한국에 들

어온 탈북자들은 1년 지나면 상당수가 교회를 떠난다. 탈북자들은 주제 사상과 공산주의 무신론으로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설교를 통해서만 변화되기 어렵다”고 했다.

또 “한국교회에 잘 정착하고 있는 기독교 탈북자들 중,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다. 그 수치는 70% 이상이다. 한국에 나와 정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거나 졸업하고 목회하고 있는 탈북 신학생 목회자들이 200명에 가깝다면, 그들 가운데 90% 이상은 제3국에서 복음을 듣고 거듭남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선교회를 통해 제3국에서 양육받고 온 탈북자들은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북한선교의 헌신자들로 준비되고 있다. 그 친구들 가운데는 3개월 이상 탈북자 단기선교사로 헌신하는 이들도 많다. 복음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는 “북한선교는 교회 건물 세울 돈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사명자를 키우는 것이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북한이 열리면 교회 건물을 세우겠다는 생각 대신, 북한선교 지도자들을 양육함으로써 북한의 복음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문화적 토양은 남한과는 다르다. 탈북자들을 준비시켜 스스로가 향후 북한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교회들은 중국과 제3국에 있는 탈북자들에게 선교사들을 계속해서 파송해야 한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탈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영적·인적·물적 자원들을 투자해야 한다. 제3국에 있는 탈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비용은, 우리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든다. 탈북자 1명을 복음으로 훈련시켜 영육을 구출하는 비용은 200만원이면 거의 충분하다. 이 일이 강력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빌립 선교사는 둘째 날인 18일 오전과 오후에 ‘탈북민 구출과 양육’, ‘중국 내 사역 현장’에 관해 강연했다.

신태진 기자

# 미주베델교회 창립 15주년 맞이해

미주베델교회(담임 정요한 목사)가 20일 창립 15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 예배에서는 미주예문교회 심진구 목사가 대표기도, 미주하나님의교회 최경일 목사가 성경봉독, 남가주교협 전 회장 변영익 목사가 설교했다. 이어 LA기독교상조회 회장 정문섭 박사, 크리스천헤럴드 발행인 양준호 선교사가 축사했고 시인 최선호 목사가 축사를 낭송한 후, 주은혜감사교회 오세원 목사가 봉헌기도, 새소망교회 원로 홍성호 목사가 축도했다.

설교를 한 변영익 목사는 “미주베델교회가 구원에 대한 확실있는 말씀 선포와 능력있는 기도로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담임 정요한 목사는 “지난 15년 동안 지켜주신 에베에셀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린다”면서 “작은 교회이지만 커뮤니티 봉사와 특히 무료로 핸디맨 클래스를 개설하여 일반인들은 물론 선교사 사망생들께 실제적인 도움을 준



창립 15주년 감사예배를 드린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미주베델교회는 지난 1999년 7월 17일 6명이 개척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인 커뮤니티 봉사와 알래스카, 멕시코 선교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3년 전부터 핸디맨 클래스를 개설해 고려대학교 공과대

학을 나온 배기문 교수를 통해 4기 졸업생 100여 명을 배출했다. 이 클래스는 매년 두 번 4월과 10월 8주간 무료로 개설된다. 한편, 정요한 목사는 연세동문사회(연목회) 회장을 역임하고 크리스천헤럴드 주필 겸 미디어 사장으로 섬기고 있다. 김나래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믿을 수 있는 농협 한삼인**

**창고대 방출**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서부총판

1-866-902-8282 www.korginseng.com

LA 지점: 3130 W Olympic Blvd #120 LA, CA 90006 총판전화: 1701 W Orangef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323.737.8888 (8월1일부터 - 서부인명당) T.213.453.6624 (마리타마켓빌딩)

**홍삼순액**

100%홍삼농축액

100g 소분자가격	\$90	240g 소분자가격	\$185
2개 구입시 \$150		2개 구입시 \$370	
3개 구입시 \$180		3개 구입시 \$555	
4개 구입시 \$230			

30포 \$120, 60포 \$180, 90포 \$255, 120포 \$320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융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미연방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 “감리회, 개혁으로 다시 일어서겠다”

## 기감 개혁특위 제1차 회의 및 출범 기자회견 열어



기감 개혁특위가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기감 본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전용재 감독회장)가 21일 ‘감리회개혁특별위원회’(개혁특위)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교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도 감독회장 선거에서 ‘변화와 혁신으로 함께 웃는 감리교회’ 실현을 약속한 바 있는 전용재 감독회장은 향후 실질적인 감리회 개혁을 위해 개혁특위 위원 선임을 마치고 21일 첫 회의를 개최한 후, 위원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개혁특위의 출범과 향후 활동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6월 12일 개최된 기감 제30차 총회실행부위원회는 “감리회가 개혁을 통해 화해와 일치를 이루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감독회장 직속기구로 30인 내외로 구성되는 개혁특위를 설치하며, 위원의 선임 및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감독회장에게 위임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개혁특위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전용재 감독회장은 개혁성과 전문성, 세대, 성별, 연회, 부문 대표의 균형있는 참여에 원칙을 두고, 개혁

특위 위원을 선임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전 감독회장은 개혁특위 위원의 2분의 1은 연회감독과 각 평신도 단체장 및 각 신학대 동문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개혁성과 전문성, 세대, 성별, 연회, 부문 대표성이 있는 감리회 내 인재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개혁특위는 위원장인 감독회장을 포함해 37명으로 구성됐고, 이 중에서 현재 35명의 위원이 확정됐으며, 2명의 위원에 대해서는 추천 중이라고 밝혔다.

개혁특위는 개혁추진기구답게 위원 구성에 있어 기존의 관행을 상당 부분 극복하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개혁특위는 각 평신도 단체장을 비롯해 3~40대 5명, 여성 6명을 선임해 젊은 세대와 여성의 참여를 확대했다.

이날 전 감독회장은 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향후 개혁특위는 “모든 감리회 공동체가 참여하는 개혁, 감리회 공동체 모두의 의견을 반영한 개혁, 한 세대 후의 미래를 겨냥한 개혁, 이념·세대·성별이 균형을 이룬 조화로운 개혁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감리회 개혁을

꼭 성공시켜 반드시 ‘변화와 혁신으로 함께 웃는 감리교회’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개혁특위는 “감리회 개혁은 인간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뤄 주실 과제라는 인식 아래, 향후 개혁특위의 모든 활동과 사업과정에서 예배와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특위는 첫 번째 회의에서도 성만찬이 있는 예배를 드렸으며, 이후 본부에 기도 공간을 만들고 매일 감리회 개혁을 위한 기도회를 열겠다고 전했다.

또, 개혁특위는 감리회 개혁을 위한 기도주일 선포, 모든 감리교회에 감리회 개혁을 위한 기도회 개최를 요청하며, 감리회 개혁을 위해 모든 교회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혁특위는 회의 중 논란이 커지거나 갈등이 있을 경우, 기도와 묵상시간을 가지면서 각각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등 신앙에 기초한 개혁과정을 밟겠다고 밝혔다.

이동윤 기자

## 한국교회 위기 원인

### 목회자 영성·인성과 교회 세속화

#### 한국장로신문, 예장통합 장로수련회 설문조사

장로들이 꼽은 한국교회 위기의 주요 원인은 ‘목회자의 부족한 영성과 인성’, ‘교회 세속화’였다.

한국장로신문이 지난 10일 경주에서 열린 예장통합 전국 장로수련회 기간 중 참석한 장로 852명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3.7%(480명)가 ‘목회자의 부족한 영성과 인성’을 꼽았다. 29.0%는 ‘신앙 및 교회의 세속화(396명)’, 19.3%는 ‘이단과 반기독교세력의 발호(264명)’, 8.4%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전도방법(115명)’을 각각 선택했다.

기독교의 대사회적 신뢰도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52.5%가 ‘교회 지도자들의 도덕성(571명)’이라고 답했다.

이어 ‘교인들의 삶 변화’가 18.3%(199명), 교회성장 제일주의의 14.0%(152명), ‘불투명한 재정 운영’이 11.6%(126명)를 각각 차지했다.

교단 내 각종 선거풍토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개선됐다’는 의견이 29.8%(매우 개선 3.2%, 개선 26.6%)였으며, ‘더 혼탁해졌다’는 의견도 25.4%(매우 혼탁 5.5%, 혼탁 19.9%)에 달했다. ‘비슷하다’가 33.7%였다.

부총회장 선거권을 전 노회원으로 확대하지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37.0%(315명), 조건부 찬성(목사·장로 총대수 동일)이 23.6%(201명)으로 60%에 가까운 지지를 보였다. ‘현행대로’는 31.5%(268명)에 불과했다.

총회 선거에서 후보들을 선택하는 기준을 꼽으라는 질문에는 절반 가까이(45.5%)가 ‘정령·도덕성’을 선택했다.

지도력이 17.3%로 뒤를 이었으며, 총회 기여도(8.1%), 교회

부흥(8.0%), 인화·성품(7.9%) 순이었다. ‘지연·학연’이나 ‘학력·경력’은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구 부재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55.7%가 ‘한기총·한교연·교회협을 모두 통합한 새 단일기구’를 원했으며, 12.8%가 ‘한기총을 폐지하고 한교연과 교회협의 양자체제’를, 11.0%는 ‘한기총과 한교연을 통폐합해 새 기구’를 만들고 교회협과 양자체제로, 2.8%가 ‘현행대로’를 각각 골랐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추진 중인 ‘한교단 다체제’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41.5%가 ‘신중하게 참여’를, 31.5%가 ‘적극 참여’를 각각 선택하면서 연합에 대한 바람을 나타냈다.

현 정부의 기독교 정책에 대한 만족도 결과는 59.9%가 ‘보통’, 29.3%가 ‘불만족’, 16.9%가 ‘만족’으로, 불만족이 만족보다 많았다.

교세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귀 교회의 전체 성도수 변화’의 경우 ‘매우 감소’가 2.2%(19명), ‘감소’가 36.4%(310명), ‘정체가 37.9%(323명) 등으로 3/4 정도가 정체 또는 감소한다고 답했다. ‘매우 증가’는 0.8%(7명)에 불과했으며, ‘증가’는 20.0%(170명)였다.

‘교회학교 학생수 변화’도 9.1%가 ‘매우 감소’, 44.1%가 ‘감소’, 29.8%가 ‘정체’라고 응답해 더 심각한 양상을 보였다. ‘매우 증가’는 0.5%(4명), ‘증가’는 12.3%(105명)였으며, ‘교회학교가 없다’는 비율도 2.2%(19명)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직접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오차는 ±2.5%P이다.

이대웅 기자

## 북한동포 구원 위한 ‘2014통곡기도대회’ 열린다

한국교회가 깨어나 북한동포 구원과 통일한국을 이루기 위해, 먼저 이 민족의 고난과 죄악을 놓고 통곡하는 기도대회를 시작한다.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과 통일한국을 위한 ‘2014통곡기도대회’가 8월 1일 대구서현교회, 8월 12일 부산사직동교회, 22일 서울교회에서 각각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통곡기도대회는 남기주의 베델한인교회를 포함한 미 전역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2004년 9월 27일, 28일 양일간 LA공항 힐튼호텔에서 약 1,600여 명의 미주 한인목회자들이 모인 가운데 시작됐다.

대회가 진행되는 중, 미 상원에서

북한인권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후 2005년까지 미국과 캐나다 17개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실시된 통곡기도대회에는 연인원 4만여 명이라는 놀라운 대기동으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2006년 2월 28일부터 3월 1일 서울 영락교회에서 열린 양일간 12,000여 명, 5월 16일부터 17일 부산 호산나교회에서 열린 양일간 14,000여 명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북한동포 구원을 위한 통곡기도회 불씨를 뜨겁게 지켰다.

주최 측은 “이번 2014통곡기도대회는 올해 유달리 큰 재난과 시련이 많은 한국과 한국교회 안에 다시 한번 위기

를 극복하고 무너진 마음들을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 전했다.

한편,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은 “한국교회가 끔찍하고 불쌍하게 죽어가는 북한동포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더 눈물을 뿌리며 통곡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통일한국을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 향후 본 기도회를 전국적으로 확산 전개 나아가길 예정”이라 했다.

2014통곡기도대회 주강사로는 이종윤 목사, 손인식 목사, 송기성 목사, 서경석 목사, 안용운 목사, 이용희 교수, 임창호 목사, 강철호 목사 등 다수의 목회자가 예정되어 있다.

박기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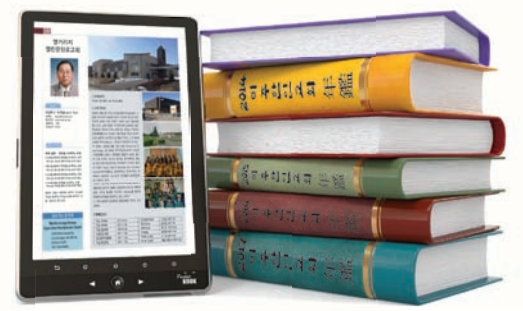
## 기독교일보

편집교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삼, 박기호, 방지국,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맹 토머스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트,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미주한인이민 111주년 기념

# 미주한인교계연감

미국은 물론 한국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을 비롯하여 언론사 및 각 신학교 도서관에 비치할 계획이며, 8,000여 미주교회와 기관(선교, 봉사, 신학교, 기도원, 기독교서점 등) 등 확실한 정보를 통해 미주한인이민과 교계에 귀중한 역사적 자료로 남게 될 것입니다.



**마감임박  
광고/리스팅**



## 스마트폰 앱

수집된 모든 교계의 정보들은 상호정보 교환이 가능한 스마트폰 앱으로 개발되어 선교적 도구로 활용될 뿐 아니라 건강한 교회와 연결되는 교도보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 양면 2p광고 : \$2,000

1/2면 0.5p광고 : \$500

▶ 전면 1p광고 : \$1,000



# 예수 안에서 함께 짓는 성전

## 에베소서 2:13-22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에베소서 2:13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자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15 원수 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몸이 곧 성전(聖殿)

구약시대의 성전의 개념이 신약에 와서는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몸이 곧 성전(聖殿)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 한국의 선교 초기 피 묻은 성경책 한 권이 복음의 씨앗

한국은 120년 전에 알렌 선교사로 인해 복음이 들어왔고 얼마 후에 영국에서 파송한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서면호를 타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려다가 자신이 짚은 성경을 배포하지도 못한 채 심장이 칼에 찔려서 순교해 가는 과정에 성경책 한 권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피 묻은 성경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는 복음이 되게 해 주시고 이 민족, 조선을 불쌍히 여기시어 구원해 달라는 기도와 함께 대동강 강변에 힘껏 던지고는 순교했습니다. 이 성경책을 주운 사람은 서상륜이라는 사람인데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지만 자주 관심이 가고 금급증이 생겨 상해로 건너가 선교사를 만나 이 책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1884년 서상륜이 성경을 붓집 속에 몰래 넣어 국내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국경지역에서 검색에 발각되어 투옥되었으나, 다행히 친지의 도움으로 빠져나와 고향인 의주에 돌아와서 동생 서경조(徐景祚)와 함께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금급령이 풀리지 않은 때라 신변상의 위협을 받아 삼촌이 살고 있는 황해

도 장연군 대구면 송천으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열심히 전도한 결과 20여 명이 믿게 되고 1884년에 주민들의 힘으로 초가집 예배당을 마련했습니다. 이 예배당이 한국에서 최초로 세워진 소래(松川)교회입니다.

그 이후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왔고 장로교와 감리교가 세워지고 1904년 세브란스에서 기부받아 세운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면서 복음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 1970년대 부흥의 전성기 회개운동이 영적 생명운동으로

과거 우리나라는 무속종교와 불교, 유교에 심취하여 왔습니다. 무당과 점쟁이들이 나라의 역사 속에 자리 잡았던 불행한 어둠의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래되면서 이 모든 어둠이 진리의 빛으로 밝혀지며 도처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깨우치게 하심과 능하신 체험적 역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운동이 성령의 불길로 번져가면서부터 기도원이 생겨나고 그곳을 통하여 많은 심령들이 성령의 불같은 능력을 체험하면서 영적 생명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1956년부터 시작된 기도원 운동과 성령운동이 세계교회사를 통해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기하급수적인 부흥의 전성기를 70년대에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 1980년대 경제부흥의 기틀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의 주역이라는 시대적 사명으로

전쟁과 일제의 압제 속에서 가난을 물려받았던 우리나라는 80년대에 오면서 경제부흥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성장을 가져온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처럼 얻은 경제부흥이 어떻게 얻어진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새마을 운동을 잘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은 한국교회를 진리정통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서 세계선교의 주역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약 2만여 명의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부흥은 하나님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에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연적입니다. 한국 경제는 하나님이 불드시고 가꾸어 주시는데 과거 IMF라는 치욕적인 빚쟁이가 되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교회가 바로서야 하고 선교에 합심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가 잘못되더라도 정치를 바로세워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두고 세우신 세계선교 주역이라는 시대적 사명은 계속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

어야 합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에 거하실 큰 성전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목적

사도 바울에 의해 세워진 에베소 교회는 이방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세계에서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 교회가 부흥이 되면서 그들 중에 자기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11절 이하에서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똑같이 주심

예수님의 피로 회개해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만 가도 성벽 바깥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담이 있었습니다. 그 담에는 이방인이 넘어면 죽자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담을 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

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똑같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15-16절의 말씀은 머리를 예수로 하는 한 몸을 이루는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구원 얻은 성도라면 똑같은 자격으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이루는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16-17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것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큰 성전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영적 공동체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 조직 속에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끼워지지 않는 것이 자기도 심판을 보류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부흥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엡 2:20-22)”했습니다.

이처럼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다시 지어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확실히 성령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온전한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 · 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주일 오전 7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미국 신문 설교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2014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1-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정회원 인증  
 특전: Sovs 4: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통신신학 \*한국상고사(한단고, 규원사학)**

- 신학(학사, 석사, 종교철학박사 전공과정) .  
 - 한국상고사(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전공은 일제 식민사학 (단국신학)이 아닌 전통역사사 한단고, 규원사학 중심으로 학사, 석사, 박사 단기 완성 가능함.

\*본교는 캘리포니아 Education cord #94874 비영리종교법인(연방 501C3)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한국장로교단 미주노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가능함.

아메리칸 중앙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 www.acus-edu.us  
 mail, 379 Loa drive #301 L.A, CA 90017 paul Lim : 213-908-8986  
 email : acus-edu@hotmail.com / acus1mjeongul@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100 e-mail : info@chongshinusua.edu  
 www.chongshinusua.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us





## 미주 대한 신학대학교

부설 Sports Mission College 스포츠 미션 대학교


미주 대한신학대학교는 1948년에 설립된 한국의 대한신학대학교(현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와 대신교단의 인준을 받아 미주교역자 양성 기관으로 1995년 5월 30일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등록하고 주정부교육국의 학사, 석사, 목회학 박사, 신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신학대학교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본 대학에서는 신학 공부를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자체 발행하여 수여하는 스포츠 학과 **Teaching License**를 취득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 대학부 : 신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대학원 : 목회학 석사 (3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선교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선교학 석사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Teaching License 수여 과목 : 골프, 테니스, 체조, 태권도, 승마**



**\*\*스페셜 풀 장학금 혜택 (이중언어 사용 능통한자)**

문의 : 310-598-0746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mr. jacob601@hotmail.com


##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PT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셜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 이민과 이민교회의 사명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하나님은 이민을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요셉의 이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집트인과 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 구원하십니다. 야곱의 이집트 이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200만으로 확장시킵니다. 바벨론 땅으로 이민을 갔다가 온 사람들은 신약교회의 뿌리가 됩니다.

성경의 역사와 함께 세계사에서도 이민이 선한 영향을 미친 사건은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시베리아를 통하여 만주 그리고 한반도로 이민을 온 사람들입니다. 미국도 청교도들의 이민을 통하여 세워진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청교도의 원조인 존 칼빈(John Calvin)과 칼빈주의자들(Calvinists)은 새로운 사회변화를 위하여 이민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칼빈 선생은 프랑스인으로서 종교개혁사상을 받아들이고 프랑스 이민자가 포함된 제네바 교회를 섬기던 목회자입니다. 핍박받던 신앙인들은 프랑스를 떠나 도시 국가와 같은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다른 주변의 도시처럼 방직공업을 발전시킬 수 없었던 제네바는 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공

업과 제조업을 목표로 삼던 제네바가 산업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당시의 종교개혁을 단행한 개신교도들은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저축을 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는 자금이 모였으며, 그것을 적당한 이자로 빌려주어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칼빈주의 신앙이 들어간 곳에는 개척적인 공업투자가 뒤따랐으며, 구교와는 달리 적당한 이윤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죄악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금융적인 개신교도들 통해 산업자본이 형성됩니다. 현대 자본주의의 시발은 여기에 있습

니다. 당시 제네바 교회의 장로였던 시 공무원들은 칼빈과 함께 정치도 개혁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파격적인 선거를 통해 공직자를 선출하였습니다. 제네바 교회는 도시의 중심 교회로서, 제네바 대학의 설립을 돕고 교역자를 배출하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제네바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전 유럽에 새로운 개혁사상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네바 교회는 단순히 여러 교회 중의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에는 새로운 유럽의 문명을 일으키는 모델로 사용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시작된 개혁적인 신앙과 삶은 중세를 넘어서 근대사회로 발돋움하는 추진력이 되었습니다.

한인이 나가는 곳마다 제조업과 상업에 투자를 하고,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험난한 이민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세계선교를 감당하는 것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복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비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섭리의 엔진으로 삼아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 “그랬어요?”



**김영길 목사**  
감사한인교회

누군가가 곁에서 전화를 받으면 “그랬어요?”한 후에 오랫동안 침묵이 흐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궁금증이 발동합니다. 무엇을 그랬다는 말일까? 전화 저 편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형편을 설명하는 소리를 듣고 “알았습니다”하는 의미로 한 말일까? 아니면 누군가에 대한 소문(gossip)을 듣고 맞장구치느라 하는 말일까? 그런데 한참 후에 그가 말합니다. “아, 제가 그랬군요.”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더 발전하고 변화될 것인지 아무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을 버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은, 앞으로 그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이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모자람이 드러났을 때에 감추려고 하지 않고 “아, 제가 그랬군요”하며 인정하는 사람은, 앞으로 그가 얼마나 풍요한 삶을 살게 될지 아무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지적받으면 변명하지 않고 “아, 제가 그랬군요”하는 젊은이를 만날 때마다, 저는 행복하

고 기쁩니다. 그의 앞날에 펼쳐질 광활하고 무한한 축복의 시간과 공간을 미리 내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젊은이를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좋은 충고를 들을 귀가 막혀있는 사람을 볼 때면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머지않아 그의 인간관계의 한계가 드러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갈 그의 모습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기자는 말했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잠언 9:8) 한편,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전도서 7:5) 때로는 젊은이들이에게 조언을 하는 일이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어디까지 그가 견디어 낼 수 있을지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훌륭한 선생은 마음에 드는 제자를 만나면 그 제자가 부러지기 직전까지 훈련시킵니다. 때로는 그의 잘못 형성된 인격이나 사고방식을 밀바닥으로부터 뒤엎아 놓기도 합니다. 물론 선생은 제자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부족한 점은 무엇일까? 변화되어야 할 점은 무엇일까? 더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거기에 무엇을 좀더 더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는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여전히 “그랬어요? 아, 제가 그랬군요”하며 변화되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직도 제 자신을 젊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변화될 구석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 실패로부터 배웁니다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다. 진실로 귀하고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혼동하게 만듭니다. 조그마한 것을 얻고 무엇보다 소중한 영혼을 잃는 우를 범하게 합니다. 욕심과 욕망은 분별력을 잠재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가요? 작은 것에 연연하면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지는 않은가요? 욕심을 버리면 세상이 훨씬 밝고 투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4. 기도부재**  
기도의 상시화, 그것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기도없이 계획하지 말고, 기도없이 일을 추진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없이 염려와 걱정부터 갖는 것은 사실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 그것을 죄로 여겨 보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없이 아이성의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함이었습니

**5. 교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의 부당함을 열거하며 원망을 쏟아냅니다. “우리가 패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여전히 자신을 합리화하는 모습은 조용한 교만을 양산시킵니다. 겸손으로 시작한 가나안 정벌에 어느덧 ‘교만’이 그들 속에 자리잡고 있음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할 때 만들어지는 성취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인간만을 드러낼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심령에게 성취나 성공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된 ‘아이성 전투’에 대한 내용을 묵상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군은 패배합니다. 실패의 교훈을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실패가 찾아올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 실패를 만들까요?

**1. 착각**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 전에 있었던 예리고성의 대승이 마치 자신들의 전투력을 통해서 얻은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리고성에 비하면 작은 규모에 불과한 아이성에 비교적 소규모 군대를 파견했는데 대패하고 맙니다. 삶의 중심부에 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사실 인간의 타락도 바로 이 착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피조물이라는 점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입니다.

**2. 하나님에 대한 제한**  
하나님은 제한받기 싫어하십니다. 무슨 일이든 함께 동역하시길 원하십니다. 예리고성의 대승은 하나님께서 앞장서심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성에서 하나님을 제한했습니다. 우리의 일에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일은 없는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생각에 따라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스스로 판단함으로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3. 욕심**  
예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전리품을 취하는 과정에서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몰래 취했습니다. 신앙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 전용하면 실패합니다. “욕심이 임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야고보서 1:14, 15)”

20세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 불과 10년 만인 BC333년에 유럽과 아시아의 대부분을 차지한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이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게 되자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내가 정복할 나라가 없으니 이제 나는 심심해서 어찌할꼬!” 이처럼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을 달성하였으나 더 큰 야망을 품고 괴로워하다가 그만 33세의 젊은 나이에 죽고 맙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사례입니다. 세상의 이기적인 야망은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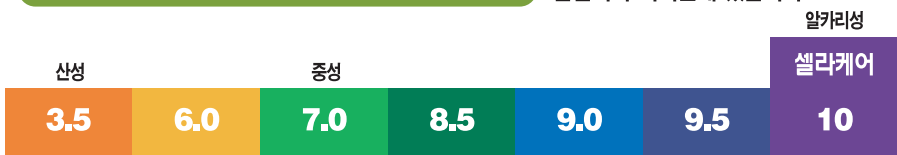


혈액 해독 / 기력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용해      뼈, 골수 영양공급

## 권장소비자가격: \$184/병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작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 신비한기적의영양제 M3<sup>®</sup> 세트

-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 셀라케어  
**SELLA CARE<sup>®</sup>**

### 셀라케어 효능사례

### 무슨 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줄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발작, 자폐증, 무감각증	시력장애인으로 태어나 무감각증으로 폐인 상태, 셀라케어 복용 후 완치되어 등산도 다닐 정도입니다. <b>방세환(20세, 원주) 010-5599-2633</b>
대장암 말기	대장암 말기에서 간으로 전이된 상태, 2달 복용후 정상으로 회복됨
위암 3기	카이저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는데 M3셋트를 3개월 먹고 나서 암수치 1.36으로 정상으로 돌아와서 수술을 하지 않게 되었음. <b>Mr. 박(72세, 엘에이) 213-268-8381</b>
심한 부정맥, 해소, 천식	심장수술을 받은 분으로 3일 복용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됐음. 30년이상 기관지 천식과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했으나, 셀라케어 복용 후 정상으로 돌아옴. <b>박옥현(77세)</b>
유방암 완치 후 모유수유	오른쪽 유방암으로 간, 폐, 골수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두 달 동안 많은 양의 M3셋트를 주스에 같이 복용 후 심한 호전 반응 겪고 완치됨. 그후 4년뒤 늦둥이를 출산하여 지금 모유수유를 할 정도로 완쾌. <b>양호연(42세, 엘에이) 213-215-6991</b>
간질과 약물중독	16년동안 하루에 몇번씩 간질을 겪어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함. 간질중독도 호전됨. 복용 후 190lb가 125lb로 되고 시력, 피부, 머리카락 좋아짐. <b>오윤희(26세, CA가디나) 213-604-1992</b>
직장암, 대장암 말기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하였으나, 복용 후 대장암에 있었던 숙변이 피와 함께 쏟아지면서 몸에 있던 큰 혹들이 줄어들며, 복용 후 6개월 후에는 깨끗하게 치료됨. <b>이순남(77세, 엘에이) 323-533-0624</b>
심한 아토피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 1개월 후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며 잠도 잘 자고 키도 많이 커졌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b>에스터 양(10세, 산타모니카) 213-215-6991</b>
대장암	대장암 초기판정을 받았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M3셋트를 먹기 시작, 수술하지 않고 복용 석달 후 완치 되었음. <b>한국 010-7928-7986</b>
비만, 우울증, 야뇨증	어려서부터 심한 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파운드 였으나 셀라케어 복용 2달후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 하면서 현재는 130파운드로 유지됨. 우울증, 야뇨증이 깨끗하게 치유 되었음. <b>샘 양(15세, 엘에이) 213-219-7746</b>
심한 당뇨, 고혈압	30년된 고혈압과 당뇨로 매일 약을 먹던 중 M3셋트 복용 후 4개월이 지나면서 혈압과 당뇨가 정상으로 되었고, 절대적인 다리와 온몸의 검은 피부가 회복되었음. <b>오일동(52세, 가디나)</b>
심한 알라지, 우울증, 불면증, 녹내장	코카콜라 쿨톤을 빤 새우는 고통 중 M3셋트 복용 3일 후 완치, 심한 심장 압박과 하지정맥까지도 치유됨. <b>정수지(61세, 베버리 힐) 310-800-8242</b>
심장병, 담석, 전립선	10년 동안 고혈압과 밤마다 잤은 빈뇨와 다리가 저려서 고생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약성 변화와 혈압이 정상으로 되고 담석으로 인한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b>마사루(58세, 부산)</b>
심한관절염, 변비, 생리통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 소염 진통제로도 잘 안되었으나 셀라케어로 통증이 가셨고 변비도 해결 되었으며, 큰 딸의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b>황정희(39세, 팔로스버디스)</b>
중풍마비, 당뇨, 고혈압	15년 동안의 고혈압, 당뇨를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 후 7개월 만에 고혈압, 당뇨, 왼쪽 마비도 정상 회복됨. <b>민현재(65세, 방배동)</b>
등 수술후 심한 손떨림	바리츠 침투로 인한 등 수술 후 8년 동안 심한 손 떨림으로 고생중, 복용 일주일 후부터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손 떨림이 없어지고 안정됨. <b>박성섭(63세, CA 토렌스)</b>
자폐증	가족과 의사 소통이 되지 않으며 손발이 항상 차고 손발끝이 너무 같이 딱딱 했는데 복용 열흘 후부터 손발이 따뜻하고 부드러워 졌으며, 가족과 의사 소통이 가능 해지고 상태 좋아짐. <b>정대진(16세, 엘에이)</b>
췌장암 말기	60세 중반에 가장 힘들다는 췌장암 말기로 병원에서 두 달 시험부 선고를 받고 M3셋트를 복용하고 2개월이 지나면서 부터 기적적으로 췌장암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음. <b>피터 리(65세, 엘에이)</b>
폐암 말기	50세에 찾아 온 암으로 고통 받던 중 복용한지 한달 20일 후부터 암 수치가 3.5cm에서 1.2cm로 작아지면서 좋아지기 시작하여 5개월 후에는 암 크기가 30%로 작아졌음. <b>이정수(51세, 서울)</b>
자가 면역 질환	희귀병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 상실, 지속적인 중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치병으로 M3복용 3일 후 피검사 결과 혈액수치 정상으로 나온 후 한달 복용 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옴. <b>미세스 팩(뉴저지)</b>
모유 아주적음, 심한부종	모유수유가 안되어 애를 먹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모유가 더 잘 나오며 심했던 부종이 눈에 띄게 좋아졌으며, 신생아기도 변을 잘 보고 잘 자고 돌돌했었음. <b>이은영(32세, 세리토스)</b>
혈액투석	1주일에 3번씩 2년 6개월동안 혈액투석 해 왔는데, 2달 복용 후 혈액투석 횟수가 점점 줄었고, 지금은 혈액투석을 아니함. <b>장영순(53세, 한국 서울)</b>
중풍으로 인한 마비	심한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며 인생 말년에 찾아온 병으로 비관하며 졸다는 약을 찾던 중 M3셋트를 알게되어 복용 한지 3개월 후부터 서서히 중풍으로 인한 마비가 풀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있음. <b>김정호(76세, 한국 대구)</b>
임파선암	2년전 임파선 암 수술했음. 셀라케어 복용 후 한 달 20일만에 왼쪽 가슴 유두에서 피고름이 나왔으며, 지금은 키도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 됨. <b>조인숙(53세, 시카고)</b>
갑상선암과 심한 관절염	13년동안 심한 관절염으로 신문 한장도 들기가 어려웠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고생. 셀라케어 한달 복용 후부터 심했던 통증이 차차 가라 않고 갑상선도 정상으로 회복 되었음. <b>김정연(39세, 다이아몬드 바)</b>
전립선암과 부정맥	소변이 힘들고 밤에는 7번씩 소변을보았으며,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 하였음. 복용 2달만에 밤에 화장실 가지 않게 되고 혈액 검사 때마다 혈관 찾기가 힘들었으나 지금은 혈액 흐름이 원활하여 계속 복용하고 있음. <b>필립 남(72세, 벨리)</b>
파킨스 병	3일 복용 후 몸이 가벼워지며 계속 복용하면서 자유로운 외출과 친양 사역자로 다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지금은 외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 <b>브라이언 김(70세, 버지니아)</b>
반신불수	목사님 이었고 5번의 뇌수술 후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복용 2개월만에 지팡이도 버리고 걸어다니고 있음. 왼쪽 마비도 많이 풀렸음. <b>최정석(50세, 엘에이)</b>

### 건강과성경이야기 13

안녕하세요. 건강칼럼 13번째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세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시는 일, 원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새해가 되면 누구나 바라는 일 중에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기적같은 사실을 말씀드리고, 여러분께서도 원하시면 이일이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옛부터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늘의 뜻을 다 해야 할수는 없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좋은 생각인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마른 뼈 골짜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참으로 놀라운 의학적 사실들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우선 몇구절을 읽어보기전에 에스겔서를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유다의 멸망으로 바벨론에 끌려간 부시의 아들 에스겔이라는 제사장을 통하여 약 22년간 유다와 다른 국가들의 심판과 회복 그리고 여호와삼마라는 메시아 왕국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니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많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니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리" 이 기록을 보면 생기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몸에서 생기는 일산화질소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미네랄이라는 영양소에 의하여 만들어 집니다. 심장, 폐, 신장, 간은 우리몸에서 필터작용을 하는 장기인데, 이 장기들에 헬기가 왕

성해야만 다른 장기들도 건강하게 됩니다. 필터작용을 하는 장기가 약하게 되면, 우선 다리에 힘이 없고, 어지럽기도 하며, 더 나가서는 신장투석, 간사기, 폐렴, 폐기종, 폐암, 근육무력증 또는 심장에 건전지를 넣고 살아야 합니다. 두달전에 양쪽다리를 쓰지 못해서 지방이대신에 끌고다니는 보조기구로 다니시던 분이 생기를 넣어 주니까, 몇일전에 걸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시러 왔습니다. 오랜 지 카운티 양노원에 계신는 85세된 권사님도 잘 걷지를 못했었는데, 저를 만나서 제가 권해드리는 제품을 드시고 15일 만에 뛰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걷는데 자신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LA에 사시는 82세된 권사님도 이제는 보조기구를 사용하지않고 걷는데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모두 건강하게 잘 걷게 되었는데, 이것만 고쳐졌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분들 모두가 혈액이 아주 좋아졌고 기운 또한 왕성해 졌습니다. 그랬습니다. 좋은 땅에서 나온 질 좋은 미네랄을 드시고, 많은 병들이 고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선 pH test에서 10점을 받은 제품은 시중에는 거의 없는데, 10점 받은 제품을 드시면 우선 혈액순환이 잘 되고 생기가 넘치게 되어서 바로 기운이 생기게 됩니다. 77세 되신 권사님이 기적의 영양제 M3를 드시고 월경하였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자궁안에 고였던 어혈이 모두 나온것입니다. 이분 또한 77세에 제2의 인생을 즐기고 계십니다. 위에서의 성경말씀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고 했을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신 말씀처럼 살고 죽는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건강을 돌아보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아무쪼록 기적의 영양제 M3를 모든분들이 드시고 건강하게 되셔서 이 제품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슨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건강상담과 기적의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료건강상담 문의 213-435-9600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GMP생산품 입니다. [www.sellacare.com](http://www.sellacare.com)

본사(LA)	213.435.9600	뉴서울호텔 (필달)	213.386.5310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뉴욕	201.953.0022
시온약국	213.382.6485	LA벌몬 마틴약국	213.382.9718	에나하임	714.469.5809	버지니아	703.684.9199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LA벌몬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시애틀	206.331.6655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시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가디나	714.351.0440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세크라멘토, 아리조나	602.332.6492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글렌데일 한국마켓 약국	818.637.7708	얼바인	949.330.9009	샌루이스, 캔사스	314.570.9629
에스약국	323.733.7788	벨리	818.642.8223	H 마트 내 H 헬스 (얼바인)	949.251.0193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벨리 소망 약국	818.832.2757	놀릭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하와이 총판	808.359.3376
LA 다운타운	213.798.3333	오렌지카운티	714.795.1540	파이오니아약국 (세리토스)	562.402.6972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847.877.6346
LA시온마켓엄마손약국	213.739.3030	부에나파크 종로의료기구	714.530.8275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LA 6가 버질약국	213.384.1200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626.839.2868	텍사스 (로얄백화점)	972.620.2900
LA 사랑방	213.351.9552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로랜하이츠	626.912.5727	플로리다	954.985.3928
LA내처영양센터	213.739.8874	플러튼 내처영양센터	714.690.0120			캐나다	604.872.1669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 개척 5년 만에 3500명으로 폭발적 성장했지만 건축하지 않는 이유

## 한여름영성축제 ‘비전을 추수하라’를 주제로 도전, 한국 새로운교회 한홍 목사



한국 새로운교회의 주일예배 모습 ©새로운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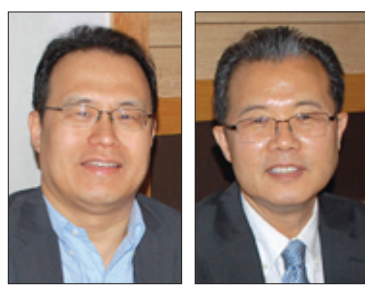
한홍 목사(새로운교회 담임) 초청 한여름영성축제가 ‘비전을 추수하라’를 주제로 18일부터 20일까지 연합장로교회(담임 정인수 목사)에서 열렸다. 이에 앞서 기자회견을 가진 한홍 목사와 정인수 목사는 입을 모아 이번 집회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정인수 목사는 먼저 “여름은 보통 영적으로 나타내지거나 느슨해지기 쉬운 계절이다. 애틀랜타의 여름은 아름답기 때문에 영성있는 강사님을 모시고 한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다. 한홍 목사님의 영성이나 리더십은 연합교회와 걸러도 비슷하고, 최근 개척해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한 비전의 롤 모델로 배우고자 모셨다”고 소개했다.

한홍 목사는 이어 “애틀랜타는 처

음이지만 굉장히 오고 싶었다. 지역마다 영향력 있는 디아스포라교회들과 호흡을 맞춰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고자 하는 비전이 있다. 매년 여름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집회를 하다 올해 처음 쉬기로 했는데, 애틀랜타에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왔다. ‘비전을 추수하라’는 제목으로 제가 겪었고 자라온 이민 사회 성도들에게 비전과 부흥을 도전을 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사도행전적인 비전을 안고 2009년 9월 한홍 목사 가정과 30여 명의 성도들이 개척한 새로운교회는 현재 3500명 이상이 출석하는 놀라운 성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 건물을 사거나 건축하지 않고 일반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는데 이는 뜨겁게 성장하던 교회들도 건축을 하



집회를 인도한 한홍 목사(새로운교회)와 정인수 목사(연합장로교회)

는 순간 그 안에 간혀버리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대신 사역 자체에 역동적인 세상 속 리더를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새로운교회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6:4 정도로 남성들이 교회 활동에 열심이라는 것이다.

“교회에서 남성 성도 중심으로 많은 드라이브를 건다. 한국 사회는 이미 여성 파워가 막강하고, 교회 역시 여성 중심으로 움직인다. 여성들은 세워지지 않아도 신앙이나 영성이 충분히 좋은데, 남성들은 죽어라 세워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 있지만, 남편들이 믿으면 가정이 든든해진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에이전트라는 비전을 갖고 남성들을 변화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남성들에게도 많은 격려와 위트가 필요한 시대다.”

미국 이민자의 아들이기도 한 한홍 목사는 엘에이에서 자라며 개척교회를 섬기는 아버지 모습 보고 신앙을 다졌으며, 변호사가 되고자 했지만 대학생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한 뒤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

“최근 할렐루야교회, 지구촌교회, 호산나교회 등 한국 대형교회의 후임으로 1.5세 목사들이 세워지고 있다. 이분들과 교체하면서 ‘왜 우리를 한국교회로 부르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는데, 이는 한국 사회가 국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외국 생활이나 문화를 접해 본 20, 30대가 적지 않고 영어도 잘 한다. 1.5세 목사들은 한국어와 한국 정서를 이해하면서도 각자 어려운 이민 생활 가운데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의 영적인 상황과 잘 맞는다. 또한 한국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세계 교회의 관심과 선망이 있는데 이를 소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33세에 온누리교회 양재캠퍼스 담임목사, 햇볼트리니티 리더십센터 원장으로 섬겼으며, 리더십 분야의 정상급 스피커로 교회는 물론 여러 대기업, 공기업, 학교 등에서 강연해 오고 있다. 17권의 저서 중 7권의 리더십에 관한 저서가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리더십이라는 꼭지를 통해 기독교가 한국 사회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목사가 이 정도 강의를 제공하고 도전 받는 것을 보게 됐다. 기독교 안에서도 불교나 천주교처럼 사회와의 접촉점이 될 사람이 필요하다. 오히려 기업에서 강연하면서 그분들께 배우는 게 더 많다. 교회 밖에는 부르심이 있어야 간다고 생각하며 선교지라는 마음으로 다니고 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외부 강연은 많이 줄었는데, 우리 교회의 3대 비전 중 하나인 ‘세상 속으로’를 이루기 위해서도 기회가 된다면 계속 하려고 한다.”라고 한 목사는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쉬지 않고 달려온 교회 개척 5년의 기간 동안 빠르게 성장해 왔지만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개척교회의 어려움은 모두 겪었다면서 “이제 좀 숨을 돌리면서, 교회가 조금 더 안정되면 목회자들과 리더십을 나누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박현희 기자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

웨스턴+3가에 있는 웨스턴 빌리지 센터로

# 이전했습니다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 컬러 포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주세요)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헤어 컬러**

**\$30 up \$10 up**

\* 단, 컬러만 하시면 \$30.00

**매직 스트레이트**

**\$100 up**

**새로운 장소에서 보다 더 편리하게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마이스타일 미용실은 서울 청담동의 최신 한국 유행 트렌드와 베버리힐스의 미국 유행 트렌드가 결합되어 당신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9:00 AM ~ 10:00 PM

**Tel: 213-739-1022**

## 8년간 짐바브웨 브룬디에서 10만명 회심

### 영국 출신 시몬 기유보 선교사의 간증

“주님, 저는 무엇이라도 하겠습니까.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영국 출신 시몬 기유보(Simon Guillebaud) 선교사가 청년의 때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선교지 가운데 한 곳으로 부름받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다.

지난 1999년,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그는 짐바브웨 브룬디로 이사하기 위해 자신이 하던 마케팅 일을 그만 두었다. 15년 동안,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믿을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았다. 이후 브룬디와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는 일에 열정을 쏟았다.

그는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난 얼마간의 돈을 들고 갔지만, 그마저도 훗날 잃어버렸다. 난 그냥 ‘그래 한번 해 보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1999년 당시 브룬디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가 돌보던 다른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고, 수많은 공격이 있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사역하던 한 친구의 말을 기억했다. 그 친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향으로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는 죽지 않아라고 했다.”

기유보는 우산이 되어줄 수 있는 단체인 ‘Great Lakes Outreach’(GLO)를 설립하고, 지역 단체들과 연합하면서 지도자들과 복음을 나눴다. 지난 8년 동안 브룬디의 1%에 해당하는 10만 명이 그리스도께 돌아왔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간증이 넘쳐났다. 그는 “나의 친구 야그네스는 귀가 안 들리고 앞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 근육운동을 해야 했다. 7년 동안 그녀의 부모는 매일같이 그녀를 휠체어에 태운 채 일광욕을 한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녀는 기도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러다 한 청년단체의 젊은이들이 그녀를 위해 기도해 주었는데, 신기하게 그녀가 보게 되고 듣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은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교회 성가대에 참석한 그녀는,



시몬 기유보 선교사

몇 주 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됐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찬양하는 그녀의 혀를 풀어 주신 것이다. 그 이후 그녀의 입이 닫힌 적이 없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열정적인 복음전도자가 됐다. 과거 그녀의 사역은 전국 라디오 방송에도 나간 적이 있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또한 귀신에 사로잡혔다가 복음을 듣고 자유로워진 한 여성의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이 여성은 처음에는 복음을 거부했으나 결국 영접했으며,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됐다. 이날 이 여성과 함께 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직접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유보는 브룬디 사역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이 바로 ‘감사’라고 했다. 그는 “모든 것은 선물이다. 나는 혜택 받은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내가 만약 시력을 잃게 되었다면,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생각했을 것이다. 만약 볼 수 없는 사람에게 ‘시력이 선물이나, 당연한 것이냐’ 묻는다면, 틀림없이 ‘선물’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과 깨끗한 물, 충분한 음식 등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다. 난 배가 고파서 1년 동안 진흙을 먹었던 한 소년을 알고 있다. 그는 잇몸으로 돌을 잘라내야 했다”고 했다.

“우리는 극도로 어두운 전쟁터 가운데서 봉사의 특권을 배웠다. 여러분들이 이를 배우기 위해 브룬디로 갈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교훈을 적용할 수는 있다”고 그는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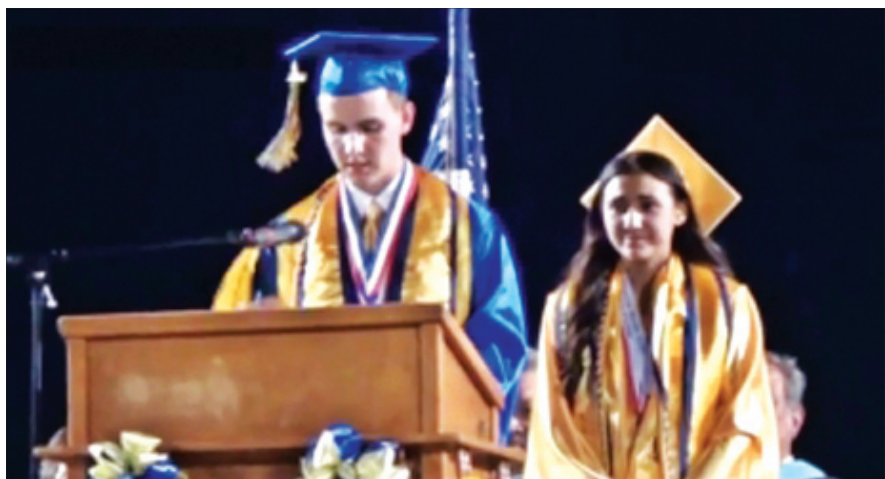
기유보는 이러한 교훈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 자신의 신간 ‘Choose Life’를 소개했다.

강혜진 기자



### 공립학교 “졸업연설 종교적 표현 금지는 의무”

#### 신앙과 관련된 내용 배제할 것 학생들에게 요구



지난 6월 캘리포니아 브롤리 유니언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연설하는 브룩스 햄비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고등학생이 졸업식 연설에서 기독교적 언급을 하는 것을 금지 당해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지역 교육 당국이 이러한 조치에 대해 사과하는 대신 자신들은 “특정 교파에 대한 거론을 막을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브롤리 유니언 고등학교(Brawley Union High School) 출신의 브룩스 햄비(Brooks Hamby)는 지난 6월 졸업식에서 연설을 전하며, 기독교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캘리포니아 교육 당국의 지침을 어기고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자신의 기독교적 신념을 주제로 연설해 미 전역에서 화제가 됐다. 그가 연설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은 한달이 지난 지금도 온라인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햄비를 변호하고 있는 범조 단체인 리버티 인스티튜트 측은 캘리포니아 교육 당국이 그에게 연설 내용에 대한 제재를 가한 점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향후 공립학교 졸업식에서 연설하는 학생들이 햄비와 같은 종교적 제재를 당해서는 안된다며 정책을 바꾸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교육 당국의 변호인단은 15일 “공공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세속적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재가 의무사항”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들 변호인단은 10쪽 분량의 서한에서 “제9순회 항소법원과 연방법원에서는 공립학교의 연사로 나서는 학생은 기도를 인도하거나 특정 교파적 표현이나 개종에 관한 내용을 연설할 어떤 헌법상의 권리도 없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이 햄비의 연설에서 기도나 교파적이고 개종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이 배제되도록 한 것은 합법적인 의무로서 국교 금지 조항의 위배를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리버티 인스티튜트의 제레미 디스는 브레이트바트 뉴스(Breitbart News)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역 교육 당국이 햄비와 그의 변호인들이 사과를 요구하며 보낸 서한에 대해 외부 범조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까지 대항하고 있다는 점에 놀랐다”며, “특히 당국이 이 회사와 최소 3년 이상인 계약을 했다는 점은 더욱 믿을 수가 없다. 마치 긴 여정을 미리 염두에 둔 듯하다”고 말했다.

디스는 햄비에 대해서는 “그는 매우 훌륭한 학생이다. 나는 그가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햄비는 최근 18세가 되었으며 다가오는 가을부터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가게 된다.

리버티 인스티튜트는 지역 교육 당국에 맞서 소송을 이어갈지의 여부를 햄비와 함께 고려 중에 있다고 밝혔다. 햄비는 지역 언론들에 자신이 “충격을 받았으며 놀랐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상황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데저트 리뷰(Desert Review)에 “이 모든 상황이 나에게 좋은 배움의 경험이 되고 있다”며, “이 일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적 자유를 지키는 일에 나서는 것이 옳은 일이며, 교육 당국이나 학교의 제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역시 옳은 일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학교측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러한 행동들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인데 이는 불행한 일이다”고 밝혔다.

햄비는 자신이 전한 연설에서 동료 학생들에게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는 일에 나설 것”을 격려했다. 그는 학교측에 연설문 초안을 세 번 제출했지만 모두 제재를 당했고, 연설에서는 네 번째로 작성한 초안에 따라서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요구 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의 양심과 옳은 일을 하기 원하는 마음을 저버리는 일을 하도록 요구 받을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의 소금이 되자. 더욱 굳건해져서 우리의 신념을 위해서, 옳은 것을 위해서, 윤리를 위해서, 도덕을 위해서, 그리고 신성한 믿음을 위해서 수호자의 자리에 서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선한 것을 지키는 일에 나서자”고 연설했다.

손현정 기자

### 버거킹 동성에 지지 버거에 美 가정단체 반발

미국 샌프란시스코 버거킹 매장이 이달 초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프라우드 와퍼(Proud Whopper)’를 판매한 이후 기독교 가정 운동 단체의 반발에 직면했다.

당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Gay Pride Parade)에 맞춰 한정 판매된 이 버거의 포장지는 동성애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색으로 되어 있었으며, ‘우리의 내면은 모두 같습니다’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 이 버거의 판매 수익금은 2015년 졸업 예정인 동성애자 고등학생들의 장학금으로 기부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버거킹 글로벌브랜드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페만도 마차도(Fernando Machado) 부회장은 “버거킹이 미국의 동성애 행사를 후원한 것은 처음이다. 이 특별한 버거는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지만 후에 이런 후원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버거킹의 이 같은 프로모션에 대해서 미국가정협회(American Family Association)의 팀 와일드먼 회장은 “미국 전역에 체인점을 둔 버거킹이 동성애를 건전한 것이라,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일로 홍보하고 있다. 버거킹이 계속해서 이처럼 불건전한 행위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나선다면 미국의 가족 소비자들을 잃게 될 것이다”고 비판을 가했다.

손현정 기자

협회는 현재 단체의 회원들과 후원인들에게 개인 소비자로서 버거킹 분사 담당자들에게 보낼 수 있는 항의 이메일을 전달하고 있다. 이 이메일에는 “나는 버거킹이 샌프란시스코에서 ‘프라우드 와퍼’와 같은 상품을 판매한 것에 실망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한 것인가”라든지, “버거킹의 동성에 행위에 대한 지지는 가족 소비자들에 대한 모욕이다”, “버거킹 모든 체인점들이 이번 프로모션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실수로 인해서 버거킹 전체의 이미지가 훼손되었다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와일드먼 회장은 회원들과 후원인들에게 이러한 내용의 이메일을 버거킹에 보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비록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만 ‘프라우드 버거’와 같은 류의 상품이 판매됐지만, 신념 있는 소비자들이 나서지 않는다면 비슷한 일이 다음에는 미국 전역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버거킹 외에도 최근 스타벅스가 시애틀에서 열린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 당시 동성애 상징 깃발을 분사에 내걸면서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지지한다는 뜻을 표명했으며, “동성애 홍보에 반대하는 사람은 보유 주식을 팔아도 좋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LA 지역**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한천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세례 오전 6:20

**갈릴리션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박현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천왕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51 W.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413-1600 / laopendoor.org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목,금)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7:45 EM예배 오전 11:30 **진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정우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 오전 6:30 (월-금)  
오전 10:30 (수) 오전 6:30 (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신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김광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00 **김요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1:45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737-3538 / www.laredeemer.com

주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주일오전 11:00 **이영** 담임목사  
천왕예배 오후 1:45 심야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라성빌라델비아교회**  
하나님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  
3240 Wilshire Blvd. #265 Los Angeles, CA 90010  
T. (714) 319-2234

주일예배 오전 9:00 중등부예배 주일오전 9:00 **김경렬** 담임목사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00 목요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시 30분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399-7949 / www.smkc.us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한기형**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9th St,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정장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김은일, 미음, 공,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박승부** 장로 1-6기 수료생 배출, 현재 7기 수료생 양성 중  
- 수기치료의료선교사 양성  
- 역물이나 기구없이 손만으로 각종질병치료하는 의술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2836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1-7273 / (213) 605-2928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조인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행 (정부 배넛넷 전방)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임산부 메디칼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요한 선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김세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현연섭**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후 천왕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구인성장로교회**  
실천하는/전도하는/환신하는 신앙 공동체  
4545 W.Washington Blvd. LA, CA 90016  
T.(323)428-7878 F(323)932-0788 / kaiholy@hanmail.net

**김중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예향선교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213)281-1196 E. isaacdeew@hotmail.com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323)766-9922 / www.j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신승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대표 김갑선** 목사 부설 : Naturo pathy Clinic(월-금)  
진료문의 213) 505-7067

**지구촌 농업선교회**  
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T. (213) 505-7067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이명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초.청년의 흠뻑,버튼교회와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몰라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 549-9199 / choonghyu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주일학교오전 11:00 Youth  
오전 6:00 (토)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6층 체플름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김기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LA사랑의교회**  
평화를 이루고, 이인(2세)을 축복하며, 이인(2세)을 축복하며, 선교와 영혼을 증진하는 교회  
51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323)930-0011,(323)935-0011 / www.LASarang.com



# 교회혁신교회

##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선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EM)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박석성** 담임목사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성경공부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토요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성일**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교하고 가르치는 교회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화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30  
목요예배 오후 7:30분  
새벽예배 오전 6:00(수,토)

주일오후 성경공부 오후 1:30  
영어예배(EM) 오전 11:3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30

**안병권** 담임목사

**가나교회**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T. (310) 986-9797 / ganachurch.homepage.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일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정성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선양예배 오후 7:45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기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기대연습 오전 10: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회**

1044 West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 365-9188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通)하고 인통(通)하며 물통(通)하여 민사형통함시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이중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9400 / cornerstonetv.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15(EM) 청년  
5부예배 오후 3:00(KM) 청년

장애우예배 오전 10:00  
Today-Youth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김바울**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7:00(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전 9:30/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2:0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학생예배 오후 12: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벤추라 감리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세리토스채플)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세리토스채플)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벨리채플)  
목요장성집회 오후 7:45(다우니 채플)  
금요장성집회 오후 7:45(벨리채플)

**최희**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57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818) 363-5887 / in-christcc.org

EM예배 오전 10:00  
스페인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필로우클럽) 오후 12:00(분당)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신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 뉴욕교협 새 회관 확정, 유니온 떠나 리틀넥 시대 연다



뉴욕교협이 입주하게 될 건물 외관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승희 목사)가 현재의 유니온 스트릿을 떠나 리틀넥에 새롭게 자리를 잡는다. 뉴욕교협은 지금까지 교협회관건물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 다양한 새 회관 건물을 물색해 왔으며 최근 리틀넥 지역의 중국인 교회로 사용되던 건물을 계약했다.

뉴욕교협의 새 회관은 더글라스톤 파크웨이 메이시스 백화점 등 쇼핑몰과 인접해 있는 빨간 벽돌의 깔끔한 외관을 가진 건물로, 주변에는 푸른 숲이 우거져 있고 매우 정숙한 것이 장점이다. 숲을 끼고 있는 61 에이커를 따라서 쉽게 무료주차도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이 건물은 중국인 교회가 다른 건물로 이전하기 위해 내놓은 것으로 교회가 사용한 건물인 만큼 예배실을 비롯해 다양한 공간들과 시설이 이미 구비돼 있다. 뉴욕교협

은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예배실과 사무실, 그리고 뉴욕청소년센터 본부로 꾸밀 예정이다.

뉴욕교협에 따르면, 회관 이전 담당자들은 지난 7일 건물 매매 계약 절차를 최종적으로 마쳤으며, 이에 뉴욕교협은 입주 과정을 남기고 있다.

매매 규모는 총 190여 만 불로 뉴욕교협은 교협회관 매각 비용 120만 불, 청소년센터 헬터 매각 비용 35만 불과 40여 만 불의 대출을 합쳐 비용을 지불할 계획이다.

뉴욕교협 실무진들을 비롯한 건물이전 책임자들은 새 회관에 대해 큰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

뉴욕교협은 새로운 회관의 매입과 이전과 관련한 임실행위원회 및 임시총회를 조만간 열 예정이다.

김대원 기자

## 무더운 날씨지만 노숙자들에게 복음 전한 어린이들



제일장로교회 스와니 유년부 어린이들의 노숙자 전도 모습

에틀랜드 지역의 제일장로교회(담임 서삼정 목사) 스와니 유년부에서 지난 13일(주일) 다운타운 허트 파크에서 노숙자 전도에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유년부 어린이들은 200명 가량의 사람들에게 기도와 찬양, 말씀을 전하며 정성이 가득한 음식도 나눴다.

스와니 유년부 담담인 안영희 전도사는 "어린이들이 더운 날씨에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하면서도 불평 한 마디 없이 묵

묵히 최선을 다했고, 일대일로 전도지를 나누며 복음을 전할 때도 한 없이 기쁨이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어린이들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이날 전도를 마친 뒤 곧 다시 만나 '소망의 맛을 전해 주고 싶은 마음'을 안고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다.

박현희 기자

## 조지아크리스찬대학교 목회학 박사 7월 집중강의 진행



조현성 박사가 목회학 박사 과정을 인도하고 있다.

조지아크리스찬대학교(이하 GCU, 총장 김창환) 목회학 박사 7월 집중강의가 지난 9일(수)부터 19일(토)까지 진행됐다.

총 8명의 목회자가 등록한 이번 학기에는 '마가복음과 내러티브 프리칭'(말씀 목회 공동체 대표 이연길 박사), '학위논문 연구 및 작성법'(GCU 전임교수 조현성 박사), '목회 리더십과 포스트모더니즘'(GCU 전임교수 김명준 박사) 등의 과목이 개설됐다.

지난해 시작된 집중강의는 수준 높은 교육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조지아크리스찬대학교 목회학 박사 집중강의의 가장 큰 특징은 '실교'에 초점을 뒀 목회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데에 있다. 목회학 박사 집중강의는 총 8과목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과목이 '내러티브 프리칭' 연관 과목이다.

강의를 총괄하고 있는 GCU 대학원장

이호우 박사는 "박사과정은 모든 영역을 다룰 수도 있지만 집중강의가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 준비된 만큼 설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실 목회자들에게 설교에 관한 공부를 할 기회가 많지 않다. 지난해 이 과정을 마친 분들 중에는 설교의 패턴과 내용 등에 변화를 가져온 분들이 많다. 성도들 역시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호우 박사는 또 "이 외에도 자신의 사역분야에 관한 논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학위논문 연구 및 작성법을 가르치고 있으며 신학적 이슈들에 대해서도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며 "한인 신학교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저렴한 수업료와 장학 혜택을 제공한다. 수강문의는 770-220-7905 또는 admissions@gcuniv.edu로 하면 된다.

김 앤더슨 기자



제69차 열방을 품는 기도 성회

“연합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



제69차 열방을 품는 기도 성회 후 기념 촬영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모진 수모와 핍박도 견디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애쓰셨던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한 영혼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워싱턴 주 지역교회의 연합과 부흥, 회개를 외치며 선교지의 복음 전파와 선교사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워싱턴 주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대표 황선규 목사) 제69차 정기기도 성회가 지난 17일 타코마 선한목자교회(담임 이두재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워싱턴 주 각 교회에서 모인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교단과 교파를 넘어 지역 복음화와 열방을 향한 선교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다.

특히 이날 기도 모임에는 연합과 중보 기도가 선교의 핵심 전략임을 재확인하며, 선교의 원천인 중보기도와 연합된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기도회는 연합 찬양팀의 찬양에 이어 신영재 목사(생명길교회)가 “연합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신영재 목사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가 외적인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어 한 영혼을 위한 사역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회는 무엇보다 선교와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목사는 또 “믿음의 사람들이 지분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간 것처럼,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자”며 “지역의 모든 교회가 믿음으로 연합되어서 함께 기도하며 한 영혼을 살리는 데에 최선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이어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 참석자들은 전세계 선교를 위해 △워싱턴 주의 영적 부흥을 위해 △일선 선교사와 후방 후원자들의 연합과 동역을 위해 △불신자 전도를 통한 중소교회의 부흥과 2세 교회의 부흥을 위해 △중증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등의 기도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다.

황선규 목사는 “워싱턴 주 지역 중보기도자와 선교동역자들이 매달 한 번씩 함께 모여, 전 세계와 지역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기도한지 거의 6년이 되어 간다”며 “형제가 연합해 드리는 기도는 주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시는 사역임으로, 열방의 구원을 비롯해 지역 교회의 부흥과 연합, 남북한의 자유평화통일, 전 세계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도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김 브라이언 기자

초기 시애틀 한인 이민자들의 어머니, 고 최진자 사모 장례예배

최용걸 목사와 시애틀 형제교회 개척, 희생적 섬김



2012년 최용걸 목사의 95세 생일감사예배를 함께 했던 권준 목사, 최진자 사모, 최용걸 목사, 권명원 사모

시애틀 형제교회 1대 담임 최용걸 원로 목사의 아내 고 최진자 사모의 장례예배가 지난 17일 에버그린 와של리 장례식장에서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의 집례로 거행됐다.

1971년 최용걸 목사와 함께 시애틀 형제교회를 개척한 최진자 사모는 당시 시애틀 이민이 시작된 초창기 한인 이민자 자녀들의 학교 입학 수속과 이민자들의 직장을 구하는 것까지 그들의 입과 손이 되어서 동분서주하며 한인 이민자들과 삶을 함께 나눴다.

또한 최 사모는 한인 이민자들의 물질적 필요를 채울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교회로 인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리는 데 앞장섰었다.

고인의 천국행을 환송하기 위해 모인 조문객들은 “고인은 마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태어난 분처럼, 희생적인 섬김과 세심한 배려와 돌봄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다”고 회고했다.

조문객들은 “시애틀 한인들과 교회, 유학생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사랑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며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보살피던 사랑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고인을 기억했다.

이날 예배를 집례한 권준 목사는 “1980년 시애틀 형제교회에 학생으로 출석할 당시 최 사모님은 최용걸 담임목사님의

사모님이셨고, 이후 시애틀 형제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한 저를 보면서 기뻐하셨고 자랑스러워하셨다”며 “최 사모님은 매주 형제교회 예배 자리에 참석하시며 하나님을 섬기셨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이날 “사명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권준 목사는 “최진자 사모님은 목사의 아내로, 교회의 사모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사역하셨고,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성실히 완수하셨다”고 전했다.

1924년 5남 1녀 중 4째 딸로 출생한 최진자 사모는 1944년 이화여자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945년 경성여자사범대를 졸업했다. 1955년에는 중앙신학교를 졸업하고 도미 전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다.

1968년 최용걸 목사와 결혼했으며, 웨스턴신대학원 특수교육학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68년 웨스턴신학대학원 졸업 후 특수아동 교육 담당 교사로 1980년까지 일했으며, 1971년에는 시애틀 형제교회를 개척해 사역했다.

1984년 최용걸 목사의 은퇴 후부터 1992년까지 산호세와 알래스카 교회를 섬겼다. 1989년부터 2006년까지는 예수 선교회를 시작하고 선교지를 오가며 사역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헌신의 힘을 쏟았다.

그리고 마침내 2014년 7월 13일 89세의 일기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김 브라이언 기자

O.C./앨버틴 지역

오병의 담임목사, 건강한 교회,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나침반 교회, 남가주동신교회

박용덕 담임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허규암 담임목사, 놀익연합감리교회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남상국 담임목사, 오픈바이블교회, 신원규 담임목사, 삼성장로교회

세리토스장로교회, 예진교회

얼바인 침례교회, 최상준 담임목사, 엘바인 한민음교회

김삼도 목사, 엘바인 할렐루야교회, 지사론 담임목사, 열방사랑선교센터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영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최국현 담임목사, 은혜와진리교회,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작은자 교회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 빛 교회,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입주자회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www.SuperMirapharm.com

# 투병생활이 필요없는 치유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천연치료제 개발!!

# 미라팜-22 Mirapharm-22

22세기형 첨단 의약품으로 탄생했습니다.

미국 FDA에 NDC (OTC Drug) 일반의약품으로 인증 등록 됨  
일반의약품 등록번호 NDC No.: 58912-2001-1



FDA 직접 확인해보기  
NDC Number를 선택하시고  
58912-2001-1 로 검색



90cap. 300mg/cap.  
Made in USA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MIRA  
PHARM  
-22**

Mirapharm-22는  
Miracle Pharmacy(기적의 약)의 합성어이며  
22는 22세기를 뜻합니다.

100% 천연 유기물질로 만들었으며 24년간의 연구와 임상을 거쳐  
효과는 확실히 검증이 되었고 부작용의 염려가 없습니다.

- ◆ 14년간의 연구와 10년간의 임상 끝에 100% 천연유기물질이면서 일반의약품으로 인증 등록된 미라팜-22
- ◆ FDA에서 본 제품의 독성 및 기타 성분 분석 검사 결과, 영양 함유물 및 식품으로 안전하다고 인증됨
- ◆ 미국 FDA에 의해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면역 결핍에 의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약으로 등록
- ◆ 친환경 천연유기물질을 생명공학 공법으로 가공한 차세대 신개념의 면역 증강, 각종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치료제로 등록
- ◆ 100% 천연유기물질 소재로 만들었기에 부작용의 염려가 없고 각종 난치병에도 많은 효험을 나타냄
- ◆ 어떤 면역증강 건강보조식품보다 월등히 뛰어나며 일반의약품 NDC(OTC Drug)로 인증 등록된 첨단의약품
- ◆ 본 제품은 면역조절제로써 면역증강 및 면역결핍이나 자가면역질환과 같은 난치병 치료에도 도움을 줌

### 갑상선 말기암 환자의 최근 체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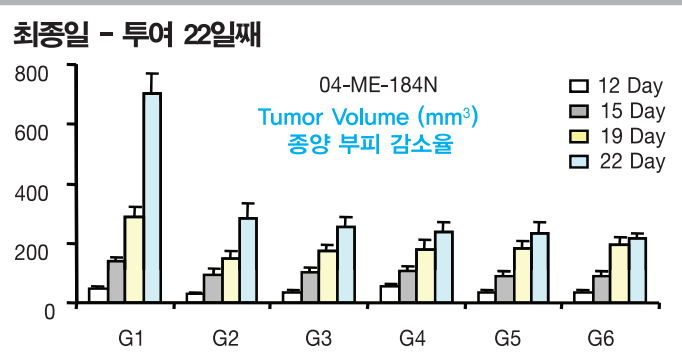
복용 후 5일 11/5/2013      복용 후 25일 11/25/2013      복용 후 77일 1/16/2014

### 생후 5개월부터 28년된 아토피 환자의 치료 사례



복용전      복용후 99일

### 미라팜-22의 암 예방 및 치료제에 대한 비임상 테스트 확인 도표



군 (mg/kg)	Control 무치료	Doxorubisin (2) 화학항암제	Mirapharm-22 (75) 미라팜-22	Mirapharm-22 (150) 미라팜-22	Mirapharm-22 (300) 미라팜-22	Mirapharm-22 (300) 사전 예방처리
22일째 (최종일)	704.6 ±67.2	285.6 ±50.6	251.9 ±36.3	235.3 ±34.6	232.1 ±38.5	214.2 ±20.5
22일째의 억제율 %	0	59.5	64.3	66.6	67.1	69.6
	G1	G2	G3	G4	G5	G6

화학요법 항암제보다 월등히 우수한 암 부위 감소율을 자랑하는 천연 치료제인 미라팜-22의 임상 결과에 대한 논문은 곧 학술지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위의 도표들은 각각 두 차례의 FDA 인가된 비임상 테스트를 거쳐 나온 것이며 자세한 데이터(64페이지)를 원하시면 본사를 방문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Q 헬스 / HQ 바이오텍, INC.** L.A. 본 점 (213)365-2100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 존 맥아더 목사

## “동성애 지지 교회는 사단의 교회”

#### 성경 권위에 대한 부정

#### 지적하며 강력히 비판

미국의 보수 목회자인 존 맥아더(John MacArthur) 목사가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교회는 “사단의 교회(Satan’s church)”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캘리포니아 주 선밸리 그레이스커뮤니티처치(Grace Community Church) 담임목사이자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맥아더 목사는 최근 미국 인터넷 매체 더블레이즈(The Blaze)와의 인터뷰에서 다소 강경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러한 발언을 했다.

그는 “이들 교회들(동성결혼을 지지하는 교회들)에게서는 성경에 대한 충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교회들의 신학대학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지난 한 세기 가까이 성경의 권위를 부정해 왔고 말씀과의 관계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들은 배교적인 교회이자 사단의 교회들이다”라고 맹비판했다.

맥아더 목사는 또한 “문화적인 기독교(cultural Christianity)”가 “급격한 속도로 죽어가고 있다”고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제도적 성격을 띤 교회들(institutional churches)이 점점 쇠퇴하고 있고, 교단들 역시 똑같은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이들 교회들과 교단들에는 진실된 신자도 있고 거짓된 신자, 즉 충실한 신앙의 신자와 희석된 신앙의 신자가 함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맥아더 목사의 발언은 지난달 미국 장로교(PCUSA) 총회에서 목회자들에게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주에서 동성의 결혼식을 집례하고 축복하는 것을 허용하고, 교단 규제집에서 결혼의 정의를 ‘한 남자와 한 여성’이 아닌 ‘두 사람’의 결합이라고 바꾸는 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언급되었던 것이라 더욱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PCUSA 총회의 이 같은 결정은 교단 내 보수 교인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보수적인 신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장로교인회(Fellowship of Presbyterians)는 당시 “우리는 총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통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많은 교단 내 교회들이 총회의 투표 결과 이후에 교단을 떠나려는 조언을 받게 될 것이



존 맥아더 목사

다”라며, 동성결혼에 대한 총회의 입장 변화가 보수 교인들의 탈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PCUSA는 지난 2년 전에도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인정함으로써, 많은 보수 교회들과 교인들을 잃었으며 2014년 들어 3년 연속으로 교세 감소를 보고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총회 자료에 따르면, 정절과 순결 조항 삭제 이래로 교인 수가 해마다 약 6만 명씩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맥아더 목사는 과거에도 언뜻 들으면 공격적으로까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언들로 미국 교계에 논란을 제공해 왔다.

그의 이번 “사단의 교회” 발언 역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맥아더 목사는 지난해 가을에도 미국 내에서 조엘 오스틴(Joel Osteen) 목사나 T.D. 제이크스(T.D. Jakes) 주교 등이 이끌고 있는 은사주의 운동(charismatic movement)에 정면적으로 비난을 가해 한 동안 논란의 중심에 선 적이 있다. 그는 당시 그레이스커뮤니티처치에서 자신의 책과 동일한 제목인 ‘이상한 불(Strange Fire)’이라는 이름의 집회를 열고, “은사주의 운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한다(dishonor God)”고 주장했다.

맥아더 목사는 칼빈주의자이자 은사중단론자(cessationist)로, 은사주의 운동 내에서 발생하는 비성경적 문제들을 지적하는 데 앞장서 왔다. 그는 특히 은사주의 교회들의 예배가 성도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이끈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그의 발언들에 당시 미국 교계 지도자들은 “일부 바른 지적도 있지만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반응들을 보였다.

순현정 기자

### 세계 교계 · 정계 지도자들, 말레이시아 피격 희생자 애도

#### “우크라이나 지역 평화가 시급함 보여 준 사건”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17일(현지시간) 키예프에 있는 네덜란드 대사관 인근에서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세계 교계와 정계 지도자들이 지난 17일(현지시간) 발생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MH17) 피격 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시하고 기도를 요청했다.

세계복음연맹(WEA) 제프 터니클리프 총재는 먼저 “사고 원인이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현지에서 지속되고 있는 갈등과 관련된 세력의 적대적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WEA는 무고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이 같은 폭력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터니클리프 총재는 “WEA의 전 세계 가족들에게 이 비극적 사고로 인해서 가족이나 지인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민을 잃은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 지역의 갈등이 평화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안을 찾을 수 있도록 다시금 기도하자”고도 전했다.

터니클리프 총재는 이번 사고에 대해 “어떤 복잡한 갈등이라도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교회협의회(WCC) 올라프 트베이트 총무도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 준 비극이고, 특히 WCC의 이웃이자 파트너인 세계보건기구(WHO) 소속 전문가들과 HIV/AIDS 연구자들을 포함해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는 더욱 큰 슬픔일 것이다”고 애도했다. 이번 사고로 전원 사망한 300여 명의 승객 가운데 100명 가량은 이달 20일부터 25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국제에이즈학회(IAS)의 ‘AIDS 2014’ 컨퍼런스에 참석하려던 에이즈 분야 저명 학자들과 전문가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베이트 총무는 “WCC는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모든 이들을 위해 애도하고 기도할 것”이라며, “이들의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비극적 사건은 폭력으로 인해 고도로 긴장된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우리가 왜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 준다”고도 강조했다. 트베이트 총무는 말레이시아를 위한 기도 역시 요청하며, “몇 개월 간격으로 또 한 번의 비극적인 여객기 사건을 겪고 있는 말레이시아 국민들에게도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WCC의 건강과 디아코니아 분야의 이사벨 아파워 피리(Isabel Apawo Phiri) 부총무는 희생된 에이즈 분야 전문가들을 특히 애도하면서 “WCC는 WHO 소속 전문가들을 포함한 100여 명의 에이즈 사역자들의 사망 소식에 슬픔을 느낀다”며, “사망자들 가운데 일부는 내가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함께 일하던 이들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피리 부총무는 “그런 의미에서 WCC 역시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들의 희생이 전 세계적인 에이즈 연구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많은 세계 교계 지도자들은 이번 여객기 피격 사건에 슬픔을 표하고 교인들에게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크라이나 가톨릭 교회 수장인 스비아토슬라프 세브츠크 대주교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교회가 무고하게 숨진 이들의 영혼들이 영원한 안식을 찾게 되길 기도하고 있다”며,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고통 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우크라이나의 교회들은 기도로 연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주교는 이어 “이 비극적 사건은 악이 실재하며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임을 드러내 보여 준다”며,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자”고도 전했다.

말레이시아 가톨릭 교회의 쿠알라룸푸르 교구도 성명을 내고 “이번 여객기 피격 사건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희생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고, 복수심이나 분노, 비난보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자체 선포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onetsk People’s Republic)이 위치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서 발생했다. 도네츠크인민공화국은 최근의 지역 불안정을 틈타 우크라이나 정부와 군대에 대한 반란 행위를 꾀해 왔다. 이들은 이번 여객기 피격 사건에 대한 책임은 부인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장 많은 국민을 잃은 네덜란드의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은 “비극적인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끼며 희생자들의 가족들과 지인들, 동료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

순현정 기자

### 전남 순천에 세계 최대 규모 ‘예수상’ 세운다

#### 지역 기독교계와 박병선 전 의원 등 추진

전남 순천에 세계 최대 규모의 ‘예수상’과 ‘국제성경 수석박물관’ 건립이 추진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순천지역 기독교계와 박병선 전 순천시 의원 등은 내년까지 순천에 신비한 돌 수천 점을 갖춘 ‘국제성경 수석박물관’과 세계 최대 규모의 ‘예수상’을 건립하는 등 기독교 순례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물관은 박 전 의원이 지난 37년여 동안 모

은 수석 3천 7백여 점으로 꾸밀 계획이며, 예수상은 이 박물관 옆에 약 50m 높이로 세울 예정이다.

이는 브라질 예수상(39.6m)의 높이를 넘어서는 것이다.

한편, 이와 함께 순천 지역 기독교계가 용서와 사랑의 상징으로 불리는 고(故) 손양원 목사를 주제로 한 기독교 순례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김진영 기자

# 척추 전문 새로운 한방병원

## 비 수술 척추 디스크치료 척추 한방 병원

비 수술 척추 **추나 치료**  
척추 교정으로 **척추질환**과 **척추 통증 치료 예방**이 가능합니다.

**특진안내**

- ▶ 중풍
- ▶ 안면신경마비
- ▶ 척추디스크 요통
- ▶ 목디스크, 어깨통증
- ▶ 무릎 관절염
- ▶ 위장병, 변비
- ▶ 갱년기 장애
- ▶ 산전산후 보약
- ▶ 어린이보약, 성장탕
- ▶ 심장병, 노이로제
- ▶ 두통, 치통, 산후통
- ▶ 관절통

**진료과목**

- 침구과
- 한방 소아과
- 한방 내과
- 한방 신경정신과
- 한방 산부인과

**원장 장재수**  
40년 경력 척추 자세교정 전문가

**T. 213)219-2739, 323)737-3789**

3513 W. Olympic Blvd #102, Los Angeles, CA 90019



PAN PACIFIC FILM FEST

# PPFF 제6회 CHRISTIAN FILM FESTIVAL

# 환태평양영화제

7월 24-26일 LA리틀도쿄 JACCC

JAPANESE AMERICAN CULTURAL & COMMUNITY CENTER  
244 S. SAN PEDRO ST, LA, CA 90012



거장의 귀환!  
**이장호 감독**  
대중상 감독상 / 백상 예술대상 감독



"북한 지하 교회의 실화"

"저의 최초 기독교 영화, '시선' PPFF영화제에서 직접 뵙겠습니다."

32편의 감동적인 기독교 영화 무료상영, 8팀의 뮤지션 그룹,  
40명 이상의 워크샵강사, 30개 이상의 부스, 음식장터  
엘에이 최초의 크리스천 종합문화 행사!

일반입장권

# 무료

(온라인 미리예약)

하루 입장권 \$10불

스텔라 시상식 \$20불

VIP PASS \$50불

영화상영 / 음악축제 / 패션쇼 / 라이브아트 / 레드카펫 / 전시부스  
영화프리미어 / 스텔라 시상식 / 워크샵 / 푸드트럭 등 다양한 기독교문화 행사



PPFF HOSTED BY GLOBAL MEDIA & IT

CONTACT US

문의전화 (888) 564 - 6890

티켓에메

# WWW.iPPFF.COM

티켓은 매진될 수 있으니 미리 예약 및 구입하셔야 합니다.

SPONSORS





<서승원 박사의 신학 칼럼>

### 하나님의 성호와 그 밖의 호칭들(마지막회)

#### II. 신약에서

##### 1. 히랍어

신약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은 "theos"(θεός) 하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말은 구약에서의 엘로힘, 엘, 엘로아흐, 야웨, 그리고 "야" 모두에 해당한다. 그리고 구약의 아도나이 즉 "주" 또는 "주님"(lord or sovereign lord)에 해당하는 말은 "퀴리오스"(κύριος)이다.

다만 히랍어의 명칭이 히브리어의 명칭과 다른 점은 호격이 주격과 다르다는 점이다. theos의 호격은 thee(θεέ)이고 퀴리오스의 호격은 퀴리에(κύριε)이다. 퀴리오스란 말의 원래의 의미는 "자신의 주인" 즉 "자신을 다스리는 자"이다.

이 말이 후에 상대방을 존대하는 뜻에서 그 이름 앞에 붙여지게 되었는데, 신약시대에 이르러 하나님과 신격화된 로마황제를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되었다. 이 말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사용될 경우 흔히 그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서 Κύριος라고 한다.

구약의 "엘 엘리온"(אֱלֹהֵינוּ)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테오스 히스토티스"(theos hypsistos; θεός ὑψιστός, 막5:7; 눅1:32, 35, 75; 행7:48; 16:17; 히7:1)라고 번역되었는데, 이 명칭이 나오는 곳은 막5:7; 눅1:32, 35, 75; 행7:48; 16:17; 히7:1이다. 이 명칭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신에게도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 명칭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주전 3세기 후반에서부터이다.

히스토티스(ὑψιστός)는 그 형태와 뜻에 있어서 최상급인데, 이 말의 원급과 비교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엘르온"(אֱלֹהִים)은 형용사의 원급이다. 히브리어에는 형용사의 비교급과 최상급이 없다.

그리고 엘 쇤다이(אֱלֹהֵינוּ) 즉 "전능하신 하나님"에 해당하는 히랍어는 "호 테오스 판토크라토르"(ὁ θεός παντοκράτωρ, 계 4:8; 11:17; 15:3; 16:7, 14)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정관사 없이 "퀴리오스 판토크라토르"(κύριος παντοκράτωρ, 고후 6:18), 또는 간단히 "호 판토크라토르"(ὁ παντοκράτωρ, 계 1:8)라고 표기되었다. "판토크라토르"의 문자적인 뜻은 "모든 것의 지배자"(παν-κράτος)인데, 고전히랍어(Classical Greek)에는 나타나지 않는 말이다.

##### 2. 라틴어

그리고 라틴어의 경우에는 신은 데우스(deus)이고 주는 도미누스(dominus)이다. deus의 호격은 데에(dee)이고 dominus의 호격은 도미네(domine)이다. 그러나 deus의 경우 존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격인

deus를 호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신이여"의 경우에는 Dee를, 그리고 "신이시여" 경우에는 Deus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의 경우에는 "주여"나 "주님이시여"나 동일하게 Domine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Deus Summus,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Deus Omnipotens이다. 여기에서 summus는 "높다"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 superus의 최상급으로서 그 뜻은 "가장 높다"(highest)이고, omnipotens(omni+potens)는 영어의 almighty(all+mighty) 그리고 히랍어의 "판토크라토르"에 해당한다.

영어와 마찬가지로 우리말의 "전능"(全能) 역시 그 문자적인 번역으로서 그 본래의 뜻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 참고

##### 1. 흔히 사용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들

1).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만군의 여호와"는 "아웨 츠바울"(אֱוֶה צְבָאוֹת)이다. 그러나 "만군의 주 여호와"는 "아도나이 아웨 츠바울"(אֱדֹנָי אֱוֶה צְבָאוֹת)이 아니라 "아도나이 예유 츠바울"(אֱדֹנָי יְיָ אֱוֶה צְבָאוֹת)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여기서 츠바울(צְבָאוֹת)은 군대, 무리, 전쟁을 뜻하는 "차비"(צָבָה)의 복수형이다.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에서 "만군"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명칭인 "아웨"가 "존재의 근원" 즉 "창조자"를 뜻하고 "츠바울"이 이와 관련이 있다면 창2:1에 근거해서 "츠바울"이 만물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명칭이 창세기에서 사사기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뜻으로는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출12:41에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말로 "여호와와 군대"(אֱוֶה וצְבָאוֹת)가 사용되었는가 하면, 삼상17:45에서는 "아웨 츠바울"에서 "츠바울"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폰 라트가 지적한 것처럼 "츠바울"이 경우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2). 여호와 이레

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 "여호와 이레"(אֱוֶה יְרֵמֶה)가 있다. 이 말은 창22:14에 나오는데, 이에 앞서 22:8에서는 "엘로힘 이레"(אֱלֹהִים יְרֵמֶה)라고 되어 있다. 전자의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이고 후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레"(יְרֵמֶה)는 "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라아"(רָא)의 미완료형이다. 따라서 그 본래의 뜻은 "여호와께서 보시었다"가 될 것이다. 창22:8, 14



서승원 박사  
바이블아카데미 원장

에서는 "여호와께서 조처를 취하시다"(God see to it that something be prepared) 즉 "준비하시었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라아(רָא)동사가 이와 유사한 뜻으로 쓰인 예는 신33:21과 삼상16:17에 나타난다. 그 외에는 모두 그 본래의 뜻대로 능동태에서는 "보다" 또는 "보이다"의 의미로, 그리고 수동태에서는 "보여지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예를 들면 창22:14에서와 동일한 말이 대하24:22에도 나오지만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시다"의 뜻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감찰하시다"라고 번역되었다.

일반적으로 "준비하다"라는 뜻으로는 출23:20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에서 보는 것처럼 "쿤"(קָם) 동사의 히필형 "하키노티"(חָקִינוּתִי)가 사용된다. 같은 형태가 민23:1, 29; 겔7:14; 38:7; 나2:4,6; 습1:7; 시7:14에도 나온다.

##### 3).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אֱוֶה רָפָא)의 뜻은 "여호와께서 치료하시다"이다. 만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하고 싶으면 "아웨 로페"(אֱוֶה רָפָא)라고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 출 15:26에 나오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는 "아니 아웨 로페카"(אֲנִי אֱוֶה רָפָא)이다.

##### 4). 여호와 닥시

출애굽기 17:15에 나오는 "여호와 닥시"(אֱוֶה דַּכִּי)는 "여호와와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다.

##### 5). 여호와 살롬

사사기 6:24에 나오는 "여호와 살롬"(אֱוֶה שָׁלוֹם)의 뜻은 "여호와와 평강이시다"이다.

##### 6). 여호와 삼마

에스겔48:35에 나오는 "여호와 삼마"(אֱוֶה שָׁמָּה)의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이다. 여기에서 "삼마"(שָׁמָּה)는 "거기"(there)라는 뜻의 부사이다.

4), 5), 6)은 원래는 문장으로서 여호와 즉 아웨는 주어(subject)이고 니

시, 활롬, 삼마는 주격 보어(subjective complement)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이에 계사(copula), 즉 연결하는 말 즉 영어의 be동사에 해당하는 동사 아야(אָי) 동사가 생략되었다. 이것은 히브리어 문장에서 자주 나타나는 히브리어의 한 특징이다.

##### 2. 알렐루야와 호산나

##### 1). 알렐루야와 할렐루야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할렐루야(הַלְלֵלוּ)의 문자적인 뜻은 "아웨를 찬양하라"이다. 그러나 보통 "주를 찬양하라" 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가끔 이와 같은 뜻으로 "알렐루야"란 말도 사용된다. 이 말은 히브리어 "할렐루야"를 70인역에서 히랍어로 표기할 때 기식음(breathing)과 액센트를 붙이지 않고 "알렐루아"(Αλληλουα 또는 αλληλουα)라고 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들을 붙여서 할렐루이아(Αλληλουιᾶ)라고 표기하였다(계 19:1,3,4,5).

##### 2). 호산나

이 말은 신약 마21:9, 15; 막11:9, 10; 요12:13에 나온다. 이 말은 시편 118:25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에서 "구원하소서"의 히브리어 "호시아 나"(הוֹשִׁיעָה נָא)의 발음을 히랍어로 옮길 때 "호산나"(hosanna)로 표기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 3. 예수

우리말에서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인데, 이 말은 라틴어 "예수스"(Iesus)에서 나왔고, 라틴어 예수스는 히랍어 "이에수스" 또는 "예수스"(Ἰησοῦς)에서 나왔다. 히랍어 "예수스"는 히브리어 "예수아"(ישוע)를 그 발음에 비슷하게 옮긴 것이다. 이것은 구원을 뜻하는 "예수아"(ישוע)와 발음이 비슷하나 모음 부호가 다르다.

예수님의 이름인 "예수아"가 "여호수아" 즉 "예호수아"(יהושוע)의 줄임말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필자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와는 구원이시다"이고 "예수아"(ישוע)는 단순히 "구원"이다.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수아"보다는 "예수아"(ישוע)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대하31:15에 나온다. 그러나 히4:8에는 여호수아가 "예수스"(Ἰησοῦς)라고 표기되어 있다.

##### III. 나오는 말

이상으로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성호와 그 밖의 호칭들 그리고 그것들의 뜻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

한가?"라는 문제를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요즈음도 가끔 설교 또는 기도하는 중에 "만군의 주 여호와" 또는 "아웨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신약에는 이런 호칭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이런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었다.

왜 그러한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설명은 역시 성경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출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는 자신을 당시 사람들이 섬기던 많은 신들의 이름과 구별하시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출3:13에 나오는 모세의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상대하셨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사도들이 편지를 보낸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만군의 주 여호와" 또는 "아웨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면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구약성경에 많이 나타난 표현이므로 굳이 문제를 삼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말을 빼고 "아웨"라는 말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적어도 동양인 특히 한국인인 우리들에게는 그렇다. 한국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치고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자유롭게 부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심지어 서양인들의 경우에도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란 말을 생략하고 그냥 "아웨"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더구나 "아웨"가 아니라 "아웨"가 하나님의 이름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고 또 그것을 공적인 자리에서 사용한다면 이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인 "아웨"란 말을 입에 담지 않는다. 심지어 하나님을 뜻하는 보통명사인 "엘로힘"이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는다.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이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는 중에 유대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대화 중에 "엘로힘"이라는 말을 했더니 몸을 부들부들 떨며 "싹" 하면서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더라는 것이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있느냐라는 뜻에서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습을 우리가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겠으나 하나님을 높이고 두려워하는 그들의 태도는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끝>



▲콧물빼기 시럽으로 환자가 치료 받는 모습

항상 코가 막혀있고 아침이면 콧물을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 체험사례1 9세 여아

콧물빼기를 하니 너무 많은 코가 빠져 나왔다. 환자가 침을 맞으려 하지 않아 발효 한약인 '코편해환'을 복용하면서 1주일째 두번씩 치료를 받았다. 치료 5번이 끝난 후, 환자 부모가 "이젠 저녁에 잠을 잘 때 입을 벌리지 않고 코로 숨을 쉰다"면서 너무 좋아했고, 10번이 끝나자 상태가 너무 좋아졌다.

# 비염, 축농증 지긋지긋한 콧병 치료는 콧물빼기 치료가 해답!



오랜 시간 비염과 코막힘으로 냄새도 못 맡는 환자

#### 체험사례2 여대생

어릴 때 부터 잠을 잘 때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 아침이면 입이 말라 많은 고생을 했다. 1주일째 두 번씩 내원, 콧물빼기와 침 치료를 병행했고 6번 치료후엔 자신도 모르게 코로 숨을 쉬면서 자게 됐다. 그래도 완전히 고치겠다고 15번정도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엔 코로 숨쉬는 것이 너무 좋으면서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에 집중이 잘 된다고 했다.

## 경산한외과병원

3030W, Olympic Blvd., Suite 202, LA, CA 90006(삼호관광몰 2층) 류재규 원장(경산한외과 대학교수) T.(213)380-0853



# 복새통

##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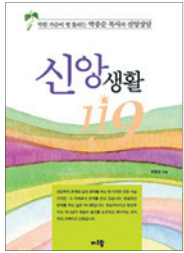


### 신간추천

#### 신앙생활 119

박종순 | 더드림 | 30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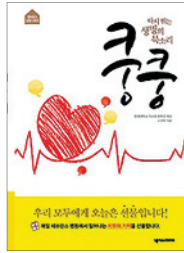
매주 금요일, 국민일보에 연재되는 '막힌 가슴이 뽕 풀리는 박종순 목사의 신앙상담' 중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베스트 질문과 대답을 책으로 엮었다. 가족과 신앙, 성숙과 교회, 관계 등 5가지 키워드로 주일성수와 세례, 구원, 예배 참석, 음주 등 신앙생활을 비롯해 자녀 교육과 고부 갈등, 보험이나 주식 투자 등의 문제들도 다룬다.



#### 쿵쿵: 다시 뛰는 생명의 복소리

고진하 | 넥서스CROSS | 332쪽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든 30편의 가슴 절절한 이야기를 세브란스병원 원목실에서 모았다.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야기들이다. 아나운서 차인제 씨, 박종화 목사, 대학생 이인제 씨, 아기 은설이의 체험담을 통해 죽음과 삶을 배운다. 기적은, 한사코 사랑하는 사람들과 끝까지 희망하는 자들을 통해 온다.



#### 일상에서 천국을 맛보는 9가지 열매

남우택 | DMI | 192쪽

총 9장에 걸쳐 '성령의 열매'를 다루고 있는 이 책은,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성품을 성경 인물과 연관지어는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알기 쉽게 풀어준다.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에 본연의 경종을 울리며,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삶의 자세를 갈라디아서의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비추어 하나하나 짚어준다.



#### 그래도 꿈꿀 권리

한동일 | 비채 | 400쪽

한국인 최초로 바티칸 대법원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교황청 법적 대리인으로 활동 중인 가톨릭 신학자의 첫 번째 고백. 현실과의 타협을 종용하던 가난과 끝이 보이지 않는 언어장벽을 넘어서야 했던 청년의 꿈과 인생, 끝나지 않은 도전과정이 녹아 있다. '할 수 있다'는 흔한 응원의 말 대신, 깨지고 부딪히고 아파했던 실패의 순간들을 털어놓는다.



## REVIEW

### 17세기 가장 탁월한 주석이라 불리는 매튜 풀 시리즈 발간

#### 평신도들을 위한 실제적, 적용적인 주석 <갈라디아서>

'17세기 가장 탁월한 주석'으로 불리는 매튜 풀(Matthew Poole·1624-1679) 성경주석 갈라디아서 편이 발간됐다.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였던 매튜 풀은 1662년 성공회 예식에 따라 예배해야 한다는 '통일령(Act of Uniformity)'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추방당한다. 존 버니언이 12년 동안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죄목이었다. 풀은 이후 1666년부터 10여 년간 150여 명의 성경 주석가들의 작업을 모아 논증하고 요약하고 비평한 주석 <성경 해석자와 주석가에 대한 비평적 개요>를 펴낸다.

그는 이 책에서 종교개혁자들을 비롯한 당대 모든 성경 주석가들의 견해 뿐 아니라, 고대 교부들과 유대교 랍비의 구약 해석, 심지어 로마 가톨릭 주석가들의 견해까지 비평하고 논증한다.

1세기 후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주석 성경>을 저술하면서 매튜 풀의 이 책을 무려 792회 인용할 정도로, 그의 이 책은 당대 최고의 주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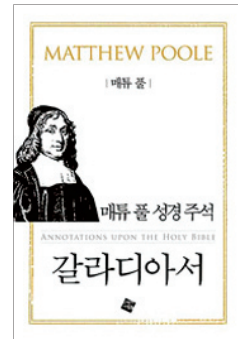
그러나 라틴어를 알지 못하고 전문적 주해훈련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이 책이 도움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는 평신도들을 위한 실제적이고 적용적인 주석을 집필하기로 결심한다.

이 책이 바로 그가 소찬한 뒤 세 권으로 출판된 <성경에 대한 주해>이다.

찰스 스펄전은 이 책을 가리켜 "단 한 개의 주석만 소장해야 하고, 내가 갖고 있는 매튜 헨리를 이미 다 읽었다면, 나는 매튜 풀 주석 외에 선택할 만한 다른 주석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다.

국내에 출간된 그의 첫 주석 <갈라디아서>에서 저자는 절마다, 단어마다 친절히 설명을 달고, 갈라디아서의 원 저자인 사도 바울의 의도와 가르침을 충실히 전달하려 한다. 또 성경 각 구절마다 참조할 만한 다른 성경 구절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문에 대해 나올 수 있는 공격이나 의문을 소개하고, 여기에 답하기도 한다. 특히 단 한 절도 버리지 않고, 꼼꼼하게 주석을 달아주고 있다.

잘 알려진 2장 20절 주해에서 매튜 풀은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게 됨으로써 못 박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유익들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죽이는 일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게 된다"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 주



갈라디아서(매튜 풀 성경주석) 매튜 풀 | 그책의사람들 | 168쪽

심을 따지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며 "그러나 바른 목회자는 본문을 정교하고 깊이 있게 주해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강도사는 "바른 목회자는 한편으로는 깊이 있는 주해를 바탕으로 한 강해 설교로 양떼를 먹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를 위협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진 이리들과 하는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학자들과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위한 주석을 쓰고, 회의론자들을 위해 변증하며,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와 더불어 용감하게 논쟁하고 고난을 가까이 받았던 풀의 삶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진정한 목회자의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고민을 남겨준다"고 덧붙였다.

이대웅 기자

9가 로데오 갤러리아몰  
OPERA HOUSE  
**Bakery**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환영 T. (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Suite # 38 Los Angeles, CA 90005



‘용서와 사랑만이 진정한 승리의 길’ 전하는 기독교 문학

루 윌리스의 「벤허」

사람들은 소설 《벤허(Ben Hur)》보다 영화 《벤허》에 익숙하다. 필자도 십대 시절 영화를 보았다.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벤허》는 1959년 만들어졌는데, 윌리엄 와일러(Wilhelm Weiller)가 감독을 하고 찰턴 헤스턴(Charlton Heston), 스티븐 보이드(Stephen Boyd) 등이 주연을 맡았다.

소설 《벤허》의 줄거리는 비교적 단순하다. 시대 배경은 서기 26년, 로마 제국 시대. 주인공 유다 벤허(Udah Ben-Hur)는 예루살렘에서 소문난 부호로 노예도 많이 있었다. 벤허는 사이오니테스란 노예의 딸 에스터(Esther)가 출가를 한다는 말을 듣고, 노예 신분을 풀어준다. 에스터는 비록 노예 신분이지만 벤허는 그녀를 은근히 좋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에 새로운 총독 발레리우스 그라투스(Valerius Gratus)가 부임해 오는데, 신임 총독 일행에 주둔 사령관으로 벤허의 옛 친구인 메셀라(Messala)도 함께 온다. 메셀라는 벤허의 오랜 친구였다. 그러나 그들은 옛날과는 달리, 로마와 이스라엘이라는 적대적인 상황으로 인해 우정에 금이 간다.

다음 날 신임 총독의 부임 축하행진 중 벤허의 여동생이 실수를 하여, 집 기왓장이 행진하던 총독에게로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진다. 그 기와가 얼굴을 들고 있던 발레리우스 그라투스 총독에게 정통으로 떨어진 것이다. 총독은 기절하여 말에서 떨어졌고, 기병들은 말에서 뛰어내려 방

패로 총독을 에워쌌다. 사건을 목격한 군중들은 젊은이가 일부러 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이들 유대인의 계획적인 사고로 보고 메셀라는 무고함을 알면서도 벤허의 가족을 잡아들인다. 결국 어머니 미리암(Miriam)과 누이 티르자(Tirzah), 그의 연인 에스터는 감옥에 갇히고, 벤허는 재산을 몰수당한 채 벤허는 쇠고랑에 묶이고 포박을 당한 채 끌려가다가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장면은 매우 감동적이다.

“그때 요셉의 뒤를 따라온 한 젊은이가 등에서 톱을 내려놓더니 우물에서 한 사발의 물을 떠 가지고 포로(유다 벤허) 곁으로 다가갔다. 젊은이의 하는 행동이 꼭 우아하고 점잖으므로 누구 하나 그 손을 막으려 들지 않았다. 젊은이가 부드럽게 포로의 등에 손을 올려놓자 포로는 눈을 들고 이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아, 그 모습! 아마도 그 포로는 언제까지라도 그 맑은 얼굴을 잊을 수가 없으리라! 얼굴의 윤곽을 장식하고 있는 물결처럼 끝없이 맑은 두 개의 눈, 그것은 사랑과 위엄이 가득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뢰와 복종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눈이었다. 어떠한 고통의 물결 속에 자기 몸이 뒹굴지라도, 지금 자기 자신에게 내려 닦힌 이 무시무시한 징벌에 대해 어떻게 해서라도 복수하지 않고서는 배기치 못하겠노 맹세하고 있는 포로 유다의 가슴에, 그



영화 《벤허》 중 한 장면

젊은이의 모습은 떨리는 듯한 감동을 일으켰다.”(86쪽).

벤허는 사발에 입을 대고 사랑에 넘치는 물을 마셨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한 마디의 대화도 주고 받지 않았다. 젊은이(예수)는 먼저 투성이가 된 그 머리와 이마를 정성스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것은 마치 어머니가 아이들을 축복해 주는 것과도 비슷했다. 벤허는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

벤허는 결국 양발이 쇠사슬로 묶인 채 죽음의 노예 함선을 타고 노를 젓는 신분으로 전락한다. 노수(虜囚)들은 여든네 명씩 두 시간마다 교대하였다. 그들은 한 마디 말도 없이 맑은 일을 해나갈 따름이었다. 노를 젓는 시간에는 서로의 얼굴을 보아서 안 되었다. 짧은 휴식시간은 잠과 한 입의 식사로 채워졌다. 그들은 어느 때고 웃거나 노래하지 않았다. 노수들은 거의 세계 각국의 인종들이 섞여

있었는데, 그들 대부분은 전쟁 포로들 중에서 근육과 인내력이 강한 탓에 뽑혀 온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벤허가 젓는 함선이 해적선의 습격을 받는다. 벤허는 이때 함대 사령관 키타스 아리우스(Quintas Arrius) 제독의 목숨을 구해 줌으로써 제독의 양자가 되고, 로마의 자유 시민이 된다.

그로부터 5년 후, 로마의 귀족 생활을 하던 벤허는 가족들의 소식이 궁금하여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 고향에는 옛날 자신의 집 노예였던 에스터가 홀로 집을 지키고 있었다. 돌아온 벤허는 친구 메셀라에 대한 복수를 결심한다. 어느 부호 아랍인의 지원을 받은 벤허는 메셀라와 함께 전차 경주에 출전한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전차 경주가 시작되고, 결국 메셀라의 전차는 뒤집혀졌으며, 벤허가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 메셀라는 죽음에 직면해서 벤허의 어머니

와 여동생이 나병에 걸려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골짜기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준다.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골짜기로 어머니와 여동생을 만나러 간 벤허의 슬픔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에스터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벤허와 함께 데리러 간다. 그러나 마침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형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다. 그에게 물을 갖다 주던 벤허는, 오래 전 그가 노예로 팔려가던 중 나사렛에서 그에게 물을 떠주던 사람임을 알고 놀란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자 갑자기 하늘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고 기적이 일어난다. 그리고 어머니와 여동생의 나병은 치유된다.

소설 《벤허》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위해 자료를 찾던 루 윌리스가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회심한 후 쓴 위대한 기독교 문학이다. 작가는 유대인 벤허와 그 친구이자 경쟁자인 로마인 메셀라를 등장시켜, 주인공 벤허가 예수를 만나게 되는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있다.

이 소설은 1922년 골드윈에 의해 처음 무성영화로 제작되었다. 그 후 1959년 윌리엄 와일러 감독에 의해 영화로 만들어져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는데, 아카데미상 12개 부문에서 후보에 올라 무려 11개 부문의 상을 받았다. 하이라이트인 15분간의 전차 경주 신을 위해 1만 5천명이 4개월간 연습했던 전설적인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이대웅 기자

박영선 목사 “설교는 성도를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신앙인 각자의 다른 현실,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 아래 묶어



주님의 말씀에 둘러싸여  
박영선 | 남포교회출판부 | 344쪽

이 책은 강해설교로 많은 이들의 영혼을 일깨웠던 박영선 목사가 지난 30여 년간 설교했던 말씀들 중 다음 세대에 읽히고 싶은 설교 21편을 선정해 엮었다. 특히 지난 2013년 합동신

대 교수 사역 은퇴를 앞두고, 가을학기에 학생들을 위해 직접 선택한 설교 본문들이기도 하다.

박 목사가 선택한 본문들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욥기, 호세아, 마태·누가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빌립보서 등이다. 설교집인 이 책에는 이미 다른 출판사들을 통해 소개됐거나 출판이 예정돼 있는 본문과 설교들이 대부분이지만, 마지막 ‘취소될 수 없는 우리의 구원(롬 4:23-5:4)’처럼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

그는 “믿어야 내 것이 된다는 것은 이차적 문제이고, 일단 믿고 나서도 이제 보니 그 일은 이미 그때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렇게 순서를 뒤바꾸어 놓은 것은 결과부터 정해놓고 취소될 수

없도록 하시려는 것”이며 “예수로부터 새 인류가 등장했고, 그 이후의 결과와 운명과 최종 승리를 못 박아 놓은 채로 우리에게 시작과 과정을 주셨다는 것. 이는 정말 감사할 일이고, 따라서 하나님을 외면하고는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할 일은 그 결정된 운명과 승리와 영광을,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펼쳐 나가는 것이다(고후 4:5-10)”라고 했다.

박 목사는 서문에서 설교에 대한 생각들을 풀어놓기도 했다. 그에게 설교는 “성도를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설교는)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성경에 담긴 능력을 펼쳐 놓는다.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지혜를 전하며,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자 구원자로서 역사하시는 현장은 다름 아

닌 성도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한다”라고 설명한다.

설교는 또 “신앙인들의 서로 다른 현실을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라는 큰 그늘 아래 묶는다. 특정한 역사적 상황 속에 놓인 저마다의 현실은 서로 많이 다르지만, 성경은 인간 누구에게나 공통되는 보편적 주제-현실은 무엇인가? 인생은 답이 있는가? 나

는 여기 왜 이렇게 서 있는가? 운명은 누구의 손에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본질적 물음으로 삼는다는 것. 그 물음에 답하는 것이 성경이고, 설교는 성도의 현실 속으로 이 답을 가져온다. 설교는 성경으로 성도의 현실을 해석하고 그 다양한 현실을 성경으로 담아낸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 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알약이 경량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 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 T. 213.487.0691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안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깁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결작품**입니다.



허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깁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나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깁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NB CORSET** Tel: 323.316.6815  
http://blog.daum.net/ysbla 3456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35.5900 714.743.1000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중고차 황제 김기형

##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는 UCLA의 대학 박사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 미국FDA에 치료 약으로 인정받았으며 주성분인 아연과 크롬으로 의약품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소한 6개월복용시 혈당에 탁월한 효과로 개선됨을 확인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해당체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해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해당체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시키는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명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데 그쳤으나 PRO-Z는 위장에 인슐린 분해를 확실하게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제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있는 당뇨 개선제입니다.

**지금지긋한 당뇨병 탈출**

당뇨병을 앓고자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금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건강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1병 \$76 + tax  
3병 \$200 + tax  
6병 \$372 + tax

**PRO-Z USA** 미국 판매처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당뇨병 가능 개선제 **PRO-Z**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090)인 제이 송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칼라레이저 프린터 리스(임대) \$49.99/month 선착순 5명

**\$69.99** \$149.99 **SAVE: \$80.00 (53%)**

MULTIFUNCTION LASER PRINTER 레이저 프린터(칼라흑백) Blow Out Sale!!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SAMSUNG SCX SERIES SCX-3405W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판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라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미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중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십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cli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KO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획기적인 절전제품/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잠잘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툰업정비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 시온마켓 내 - **치우차우만두**

• 찐빵 • 고기만두 • 김치만두  
• 야채만두 • 물만두 • 군만두

교회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냉동만두 판매/매달합니다.

**CHIU CHAU MANDOO** 213.368.0922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쇼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배배는 속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 \$50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튜살 방지  
• 건선으로 인한 붉은 주름(얼굴, 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영어: 213.380.6868 (오바마 케어 포함)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HYUNDAI

**이번달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이벤트**  
"2015년형 뉴 제네시스 입하"

**Genesis 2015** ALL IN STOCK @ \$36,120  
ALL NEW 2015 GENESIS SEDAN

**Genesis 2014 3.8** ALL IN STOCK @ \$36,120  
Lease for \$249 PLUS TAX @ 36 MONTHS

**Equus 2014 signature** ALL IN STOCK @ \$61,920  
Lease for \$399 PLUS TAX @ 36 MONTHS

36 months closed end lease on above average approved credit. \$999 down - \$250 lease cash, \$500 mileage, \$400 college rebate, 20 cents in excess of 12,000 miles per year. Total Drive off: \$399 without \$1,200 lease cash.

36 months closed end lease on above average approved credit. \$999 down - \$1000 lease cash, \$1000 Value or Competitive lease option, \$2000 military, \$400 college rebate, 20 cents in excess of 10,000 miles per year. Total Drive off: \$1099 without \$1000 lease cash.

Alex Shin 한인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ashin@winhyundaicarson.com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2201 East 223rd St. Carson 90810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All advertised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any electronic filing charge, and dealer document processing charge, and any emission testing charge. All vehicles are at Carson location. Offers available through Jan. 27, 2014



24일~26일 개최되는 환태평양영화제에 '시선' 상영 위해 LA 방문해

# 이장호 감독, “삶의 내리막길에서 하나님 ‘시선’ 에 눈떠”



전 스태프들이 풍토병에 걸릴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 대표로 희생한 것이라 생각한다. 기독교 영화를 위해 순교했다고 생각한다.

기독교 영화를 만드는 데 어려움은 없었나?

처음 영화를 계획할 때 크리스천 스태프와 연기자와 함께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했다. 그러나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크리스천들끼리 만들었다면 과도한 종교적 신념에 빠질 수 있었는데 비크리스천 연기자, 스태프들의 조언에 귀 기울여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일반 사람들도 괴리감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영화를 만들 수 있었다.

비크리스천인 강우석 감독이나 봉준호 감독 역시 부산시사회에 와서 좋은 반응을 보였고 강우석 감독은 비크리스천에게도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영화가 될 수 있다며 스스로 배급을 맡았다.

비크리스천의 조언에 따른 어떤 내용이 장면상의 변화가 있었나?

사기꾼 선교사가 등장한다. 한국에서 선교팀이 오면 가이드 역할과 통역을 해주며 돈을 받아 챙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 영화를 본 보수적인 크리스천 중 왜 죄 많은 이들만 모아놨냐며 거북해 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전 크리스천 영화 가운데는 크리스천을 거룩하고 선한 모습으로만 묘사하고,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은 사악한 모습으로만 그려 비신자들에게 거부감을 준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선교 영화라 하면,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다. 나는 크리스천들이야 말로 진짜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들만 만났었다. 그 사기꾼 선교사가 회심하게 되는 장면을 어떻게 묘사할지 고민했다. 성령을 받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줄까도 생각했는데 비크리스천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에 넣지 않았다.

\*'시선'은 PFFF 마지막 날인 26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에 상영되며, 감독과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위치는 아라타니 재팬아메리칸 시어터(244 S. San Pedro ST. LA, CA 90012)다. 참고: WWW.IPPFF.COM 한 주디 기자



'시선'의 한 장면

세계 기독교 영화인들이 기다려온 환태평양 기독교 영화제(Pan Pacific Film Festival)가 시작된다. 7월 24일(목)부터 26일(토)까지 다운타운에 위치한 아라타니 재팬 아메리칸 극장(The Aratani Japan American Theatre)에서다. 21세기 강력한 선교 도구로 꼽히는 영상, 영화를 이용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2008년 시작된 이 영화제는 특히 이슬람권 등 선교가 쉽지 않은 지역에 미디어가 효과적인 선교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독교 영화의 제작 및 보급을 활성화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로 6회째인 이번 영화제에는 한국 영화계 리얼리즘의 새로운 지평을 연 감독으로 평가받는 이장호 감독이 19년 만에 메가폰을 잡은 '시선'을 비롯해 전세계 크리스천 영화인이 출품한 100여 편의 작품 가운데 입상작 32편이 상영된다.

또 영화 마케팅 담당자 폴 로어(Paul Lauer), 시나리오 작가이자 제작자인 브라이언 가다와(Brain Godawa), 제작자 존 셰퍼드(John Shepherd), 무비가이드 창립자 테드 베이어(Ted Baehr) 등 유명 제작자들이 워크숍 강사로 선다.

이번 영화제를 위해 LA 땅을 밟은 이장호 감독을 만났다. '별들의 고향', '무릎과 무릎 사이', '외인구단', '바람 불어 좋은 날' 등을 발표하며 한국영화계에 굵직한 선을 그은 그가 기독교 필름을 들고 이 영화제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의아했다. 그러나 자신의 영화와 신앙, 19년 간 영화를 만들 수 없던 현실, 26년 간의 내리막길을 설명하는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그의 변화가 '의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래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것임을 느낄 수 있었다.

### 시선은 어떤 영화인가?

19년 만에 영화를 만들었다. 이전에 영화를 만들 때와는 다른 시각으로 만들었다. 그전에는 영화를 만든 이유가 돈을 벌고 인기를 얻고 부질없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관객을 볼모로 잡았다고 할까, 관객을 돈으로만 생각하고 영화를 만들었다. 그러다 긴 슬럼프가 왔다. 그 슬럼프가 처음에는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어느 지점에 와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슬럼프구나. 광야 훈련을 받고 있구나'라고 깨달았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는 메시지에 충실히 귀를 기울였다. 결국 그동안 만든 영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영화라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화는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시선을 바꾸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사람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화를 만들 것인가 생각했다.

주기철 목사님 손자 분인 주승중 목사가 설교에서 일본의 가톨릭 작가 엔도 슈사쿠의 침묵을 예화로 들려주셨다. 그 내용에 감동을 받아 소설을 읽으며 하나님의 시선과 인간의 시선의 차이를 느꼈다.

소설의 내용은 일본 천주교 선교 초창기에 일본에 밀입국한 로드리고는 포르투갈 신부가 천주교를 전파하던 중 약력 영주에게 붙잡히면서 배교를 강요당한다. 이 신부를 통해 신앙을 받아들인 일본 크리스천들은 거꾸로 바닷가에 매달린다. 밀물이 들어오면 머리가 잠겨 역사하게 된다. 일본 관리가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진 성화를 밝으면 살려준다고 회유하며 배교를 유도하나 성화가 그려진 동판을 밝는 대신 그들은 죽음을 택한다. 그것을 지켜본 로드리고의 신부에게도 절체절명의 순간, 선택의 순간이 다가온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찾기 위해 계속 기도하나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신다. 로드리고 신부는 침묵 속에서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그는 '나를 밟아야 한다. 너희들을 위해 밟히러 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된다. 그는 통곡하면서 그 성화를 밝는다.

이 사건은 다른 동료 신부를 통해 로마 교황청에 전달되고, 교황청은 그를 파문시킨다. 파문당한 신부는 신부가 아니다. 그러나 그는 포르투갈로 돌아가고 일본에 남아 일본 여자와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계속 천주교를 확산시켜 나간다. 인간의 시선은 교황청까지가 마지막이라 생각했다. 이후 신부의 삶은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다. 이것을 영화로 만들고 싶었고 역사극으로 만들지 않고 아프가니스탄에 샘물교회에서 여름선교를 갔다가

이슬람 반군에게 피랍됐던 상황을 빌려왔다.

### 언제부터 신앙을 가졌나?

별들의 고향(1974)이 크게 히트한 후 마약사건이 터져 4년 동안 정부로부터 활동 정지 명령을 받았는데, 박정희 시해사건 이후 다시 영화를 만들 수 있었다. 그 첫 작품이 "바람 불어 좋은 날"이다. 명보극장 주인이 아주 유명했던 신영균이란 영화배우였는데 그가 크리스천 장로다. 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부터 신우회 성경공부에 참여하라는 권유를 받았는데 거절할 수 없었다. 당시 그 성경공부를 인도하시던 분이 하용중 목사님이었다. 그분 설교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 여러 사람 앞에서 지갑에 들어 있던 부적을 꺼내 불태웠다. "바람 불어 좋은 날"의 흥행을 위한 부적이었는데, 부적을 불태웠으니 흥행이 안돼야 하는데 오히려 잘돼 부적이 가짜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목사님이 영화를 본 후 만나자고 하더니 좋은 영화를 계속 만들어 달라며 '좋은 영화의 역할은 목회자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 인상 깊게 들려 그 목사님 교회를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아주 가난한 달동네, 의자도 없이 바닥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곳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엔도 슈사쿠가 17세기 일본 천주교 초창기 박해 상황을 통해 묘사했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에 침묵하시는 상황을 겪게 된다. 이 침묵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침묵은 이미 응답을 하신 것이라 생각한다. 가령, 이번 영화는 한국에서 부활절 전 고난주간 수요일에 개봉했다. 그때 개봉을 위해 극장에 가려는데 텔레비전 화면에 배가 뒤집어져 침몰하는 장면이 비춰졌다. 세월호였다. 영화 개봉보다 더

시급한 일이었다. 고난주간이어서 한국 교회들은 특별 새벽기도를 했다. 실종자 모두 살아서 부모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였다.

기도제목과 달리, 당시 모두가 느꼈듯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다들 '왜 비극의 순간에 침묵하고 계시나'라고 물었다. 내 영화는 세월호와 함께 침몰했다. 관객이 올 수 없었다. 점차 세월호 사건은 대한민국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깨달음이 왔다. 특히 크리스천에게 책임이 있다. 하나님은 이미 대답하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었던,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은 세월호 사건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이 쉽게 응답하시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침묵을 통해 깊게 생각하게 만드시기도 한다.

19년 전에는 마지막으로 만든 영화 첫 장면에 무너진 성수대교를 담았다. 붕괴된 다리가 강물에 처박힌 채로 1년 동안 방치돼 있었다. 천사가 고수부지에서 무너진 다리를 배경으로 텐트를 치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된다. 당시 모든 영화는 금요일에 개봉했다. 그 전날 영화 홍보를 위해 방송국에 가려고 나서는데 뉴스에서 아나운서가 흥분한 목소리로 사고를 알렸다. 삼풍백화점 사건이었다. 19년 전에도 그 사건 때문에 관객이 없었다. 나에겐 이것이 큰 수수께끼다. 이 수수께끼가 뭐냐? 이를 통해 하나님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뭔지 찾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촬영했다고 들었다. 힘든 점은 없었나?

오랫동안 영화를 못 만들었다. 과거 영화 촬영 현장과 비교하면 지금은 천국 같다. 굉장히 악조건이었다. 45도 더위 속에서 촬영을 강행했다. 밀린 속독층에 물리기도 하고 비위생적인 환경도 견뎌야 했다. 그 모든 악조건 속에서 우리는 힘든 줄 모르고 촬영했는데, 그 악조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분이 바이러스성 패혈증으로 타계한 배우 박용식 씨(작년 8월 타계)다.



## Gold Finger

###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전화주시면  
출장 주문, 가봉  
완성후 배달**

Business hour 8:00am to 7:00pm  
[www.facebook.com/GoldFingerTailorLA](http://www.facebook.com/GoldFingerTailorLA)



**Master Tailor-Byung Ho Kim (Kyung Sik)**

- 법무부 직업훈련원 감독위원 역임
- 서울지방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 한국복장기술경영협회 상임 이사
- 한국아트패션 회장
- 90년 한국남성복기술경진대회 창작 최우수상
- 94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상
- 95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상
- 대림 라사운영 1979-2000

**맞춤 양복 이래서 좋습니다.**  
 한울한울, 장인의 혼을 담은 맞춤 양복,  
 고객의 마음까지 담은 맞춤양복, AS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골드핑거**  
남녀맞춤, 명품 옷수선



북미 최대 한인 현대 딜러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7 July  
Special  
Program**

**(FULL OPTION)  
ALL NEW  
2015  
GENESIS SEDAN**

**\$428** <sup>+TAX</sup>  
**36**  
Mon.

MSRP: \$55955 / SELL : \$50428  
LEASE DUE AT SIGNING \$6,275 12,000 MILES  
PER YEAR VOC \$1000, LEASE \$500. BOOST UP  
CASH \$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Stock# FU017232



**2014  
HYUNDAI  
SONATA GLS**

**\$88** <sup>+TAX</sup>  
**36**  
Mon.

MSRP: \$22,415. 36 month lease.  
After \$3,499 due at lease signing +  
\$750 lease cash + \$500 Valued owner  
coupon + \$500 Military Rebate + \$400  
College grad rebate.



**NEW  
2013 EQUUS  
ULTIMATE  
PACKAGE**

PURCHASE FOR AS LOW AS  
**\$52,170**  
<sup>+FEES</sup>

Stock# DU070308  
MSRP: \$67,170



SAVE UP TO  
**\$15,000**



스티브 장  
626.513.4006



찰리 정  
626.513.4981



저스틴 길  
626.513.4580

**1-888-850-2077**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America's Best Warranty<sup>®</sup>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www.phhyundai.com

